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박 필 수
편집인겸 발간 손 주 영
편집장 송 춘
외대신문사 (팩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 (팩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85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 규 행

제486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3월 29일 (화요일)

용인 총학생회장에 정형주군

2천9백3명투표 1천6백74표획득, 득표율 58%

총·부학생회장선거 오늘실시 개표결과 30일새벽에 나와

▲총학생회장 정형주군

▲부학생회장 안승남군

제9대 용인펭퍼스총학생회장에 정형주(서문·독어3)군이 당선되었다.

3월28일 (월) 어문학관과 학생회관로비에서 실시된 어제 선거에서 총유권자 4천5백여명중 2천9백3명이 투표에 참가(투표율 65%), 기호1번인 총학생회장후보 정군과 부학생회장 안승남군 (사회·경제3)이 총1천6백74표(득표율 58%)를 획득해 1천1백74표를 얻은 기호2번 장철수(서문·노어4), 황기원후보(서문·독어4)를 제치고 당선된 것이다.

이날 투표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되었으며 개표는 어문학관 206호에서 약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가운데 진행되었다.

3시간여동안 진행된 개표결과, 정형주군의 당선이 확정되자 개표를 지켜보던 2백여명의 학생들은 「민족해방가」「상록수」등의 노래를 부르며 정군의 당선을 축하해 주었다.

당선이 확정된 후 정군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땅의 진정한 자주화, 민주화와 왕산의 권익 증취를 위해 열심히 일할것』이라고 밝히고 『왕산 4천5백여학생들의 뜻을 대변할수있는 여러분의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9대 용인펭퍼스총학생회장선거에서 문리대(철학사학·언어학과제외) 학생들은 과회장회의를 통해 투표를 거부하기로 결정, 개별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한편, 제22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28일 (월) 서울펭퍼스 7차유세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고 오늘 오전9시부터 투표가 실시된다.

총·부학생회장 후보들은 지난 22일 (화), 25일 (금)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속에 용인펭퍼스 유세를 마쳤으며 24일 (목) 오후7시에는 서울펭퍼스 대강당에서 야간강좌 유세및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23일 (수) 과 28일 (월) 에는 약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후보자 기조발제, 유권자 서면질문등의 순으로 서울펭퍼스 2, 3차 유세및 합동공개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써클대표자 회의

「정기써클대표자회의」가 지난 3월25일 (금) 오후5시 대학원 104호에서 써클재등록에 관한 심의와 써클 징계등의 안건으로 약3시간동안진행했다.

전체 58개 써클중 47개 써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써클 재등록에 대한 심의결과 86년도 미등록으로 인해 등록 취소되었던 「기독 학생반」이 기존 써클로 인정되었고 활동부진 써클에 대한 경고 조치는 모두 부결 (3분의2찬성 가결) 되었다.

서양어대 특강

서양어대학생회에서는 3월30일(수) 오후3시 대학원 104호에서 제1학기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학문과 삶」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철학과 손봉호교수가 강의한다.

분할납부 1차등록 31일까지

2차미등록시 다음학기 등록불가

서울·용인단과대학 학생회협의회에서는 지난24일 (목) 부터 26일 (토) 까지 각단과대학생회에 접수되었던 분할납부 신청서를 28일 (월) 재무처에 일괄 제출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1차로 3월31일 (목)까지 30만원을 납부하고 2차로 5월15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일 5월15일까지 2차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1학기등록은 취소되며 다음학기등록자격이 박탈된다.

재입학신청자 3명탈락

학칙개정통해 피해 없도록해야

학칙과에서 지난, 3월2일 (수) 부터 15일 (화) 까지 접수한 시국관련제적 재입학신청자중에 박종주 (동양·마인어3·제적) 용원중 (서양·영어4·제적) 이종일군 (사회·무역4·제적) 등 3명이 심사과정에서 탈락돼 문제가 되고있다. 86년 10·28전대항쟁으로 구속된 박종주군의 경우, 강제휴학된 상태에서 86년2학기까지 등록을 하지않아 87년10월2일자로 휴학기간초과 제적되었으며 지난 총학생회 홍보부장을 맡았던 용원중군은 졸업정원제에 의해 87년8월22일자로 학사제적 됐었다.

이에 학교측은 문교부에서하달된 「대학정원령중 개정령」에 복교대상업위를 83년12월22일부터 87년7월10일사이에 제적된 학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내세워 재입학을 거부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군은 『문교부에서 규정한 기간이후에 제적되기는 하였으나 전대항쟁으로 학교측에 의해 강제휴학된 상태에서 미등록제적된 것이므로 궁극적로 강제휴학시킨 문교부측과 학교측의 행정적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용원중군의 경우도 작년 학원민주화투쟁과정중 「졸정제에 의한 제적자도 시국관련제적자에 포함시킨다」는 황병태전총장의 약속과 학생자치기구간부를 맡았던 점을 감안할때 재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번 재입학신청자 탈락문제는 현재 논의중인 학칙의 시급한 개정을 통해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조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줄소식

▲두청년 따뜻한 (?) 날 넋당으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왔나보군

▲민정(民正)광주항쟁 재해석한다고
—아전인수(我田引水)

▲오늘 총학생회장선거
—순간의선택이 외대를 좌우합니다

직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23일, 임금부분 18~40% 차등인상에 합의

지난 3월14일(월) 정의신고 이후 학교측과 계속적인 협상을 벌여오던 직원노동조합은 22일 (화) 23일 (수) 양일간에 걸친 임금협상을 끝으로 모든 협약을 끝내고 학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측과 조합측대표가 서명한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학교측은 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인정하고 조합활동에 관련된 예산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조합장이 지명하는 1명에 한해 전임제를 실시하며 기혼여성근로자에게는 산전산후 60일간의 휴가를 주게된다.

한편 가장 경쟁이 되었던 임금부분의 타결된 사항을 보면 직급별로 18%에서 40.25%까지 차등인상지급하게 되는데 낮은 직급일수록 인상폭은 높게 조정되었다. 또 청소원과 사환의 경우 10만원 이하였던 임금이 초임 11만7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청소원의 경우 20년호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결정된 임금인상부분은 올해 3월부터 실시된다.

「민중의당」 문화 선전대 공연

「외대 민중정당 학생 위원회」는 지난 3월24일 (목) 오후 2시 삼민광장에서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김놀이, 노래탈공연, 깃발춤등 「민중의 당」 문화선전대공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로 나온 민중의당 대외사업국장 박경욱씨는 『이번 총선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민중들은 패배감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며 노태우 군사독재의 탄압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경욱국장은 『국회에 민중의 대표가 진출해 민중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들릴때 국회는 군사독재와 싸우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에서 파쇼민정당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연합공천, 단일후보의 실현과 학생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건호씨 초청강연회

서울펭퍼스교육방송국 F·B·S는 오는 4월1일(금) 오후5시 대학원 104호에서 송건호씨 초청, 「해방이후 언론탄압사」의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F·B·S 보도부는 올해부터 초청강연회등 기타 다른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분할모집 절실" 71.9%

기획조정처 설문조사 모집비율에 이견 보여

기획조정처는 지난 16일(수) 부터 21일(월)까지 교수 1백3명, 학생 1천2백32명, 직원 16명등 총1천3백55명 대상으로 주요 학사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졸업학점규정에 대해 교수 84.5%, 학생 54.7%, 직원 75%가「2.0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제한학점규정에 대한 의견도 교수71.8%, 학생 41.3%, 직원56.3%로 「2.0미만」이 지배적 이었다.

또한, 현재 학사징계위원회소관인 징계처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수, 학생 80%이상이 소관부서를 단과대학교회로 변경할 것을 원했다.

입시제도에 대한 문항에는 학생, 교수, 직원 모두가 전후기 분할모집에 찬성했으나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교수의 45.1%가 「전후기 50대50」, 학생 34.9%는 「70대30」, 교직원의 35.7%가 「60대40」을 원하고 있어 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충을 바라는 학문분야에대해 외국어대학및 문학이 17.7%, 사회과학분야육성이 12.1%로 나타났고, 학생활동에 대해서는 16.9%가 세계민속예술제의 개최를 희망했다.

외대일람, 카렌다 29일부터 지급

88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외대일람 (카렌다포함)지급이 3월29일 (화)부터 4월2일(토)까지 서울·용인구내서점에서 실시된다.

사진·컷기자 특채

진통하는 대학의 사건현장을 누비며 이 시대의 증인으로 활약할 사진기자와 해학과 풍자로 이땅의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컷 기자를 특채합니다.

▲대 상 : 1학년 재학생
▲선발인원 : 각○명
▲시험과목 : 실기 및 면접
▲원서교부및 문의처 : 학생기자실
서울—학생회관 309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외 대 학 보

제6회「외대학술상」논문모집

참조적 지성의 밤을 고뇌와 울분만으로 보낼수는 없읍니다. 또한 내넬어지는 무혈입한 언어적 유희에도 만족할수 만은 없읍니다. 대중과 유리된 과학은 진정한 과학이 아닙니다. 진리의 순교자가될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사도가 결코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앞을한 현실을 극복할 글을 찾습니다. 학우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마감 : 5월31일(토)

△대 상 : 본교 재학생
△모집부문 :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
(각부문 원고지 80매 내외)
△주 제 : 자유선택
△접 수 처 : 학생기자실
서울—학생회관 309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상 금 : 각부문 당선작 30만원
(당선작이 없을때는 가작 15만원)
△심사위원 : 추후발표
※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

펜의 위치

▲또다시 오는 4월을 생각하면 어둠을 그리게 된다. 85년1학기 학사일정에 굴게 박혀있는「4월11일 전방입소」라는 고딕체 문구가 그 이유이다.

86년 서울대 전방입소때 「미제용병교육전방입소 결사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을한 이재호, 김세진 열사의 일같은 87년 전방교육의 선택이라는 기만적 술책으로 바뀌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전방입소를 맞게되었다.

기실, 현재의 전방입소란 학도호국단 체계속에 안보이데올로기의 계속되는 연장선이며 학생의식에 아편적 역할을 끼치는 정권논리의 산물인것이다.

▲이시점에서 우리는 공식명칭인 「전방입소교육」에서 교육의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란 자주적 민주국가 건설의 기본 동력이요, 교육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타의에 의해 강요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방입소교육이란 기본권리인 교육이기에 앞서 강압적 조치에 가깝다는 인상을 버릴수 없다. 물론 선택이라는 말로 미화는 되었지만 병역45일의 혜택을 앞세우는 측에가 깔린것으로 자유적 선택의 의미 보다는 강요된 선택이라는 말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방입소의 본질적 의미를 캐물는 시각이 필요하다. 분단된 조국의 철책선 앞에서 M—16을 앞세우고 반공을 앞세우는 교육은 결코 통일교육이 될 수 없으며, 전방교육의 역학적 메카니즘의 영향은 실로 크다 할수있다.

죽쇄고리 전방교육

바로 여기서 전방입소교육이 통일문제와 독재권력의 구축과 상호 연관돼 있음을 알수있다. 독재권력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을 바랄수 없을것이며 반통일을 위해 안보라는 이름의 반공 교육을 강요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일이란 결코 관념화된 외침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통일을 위한 실천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그릴때만이 바로 통일이 현실적 의미로 다가설수있는 것이다. 현재의 전방입소교육은 바로 분단조국의 현실을 역반영하는 것으로 당면과제인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을위해 전방입소교육의 의미를 되새김해야할 시점이다.

▲또다시 맞이하는 이번 전방입소가 어떤 결과로 평가될지는 확신할수 없으나 작년의 패배적인모습이 또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번 전방입소교육은 투명한 분석이 없는 거부렬위보다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작년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야 할것이다.

88년 4월의 삼민광장은 결코 전방입소를 받기위한 상흔의 장소가 필수는 없으며 분단극복을 위한 전방입소의 거부를 위해 존재한다고 감히 말하고싶다.

<조기완>

진리·평화·창조

國際化시대에 앞서가는 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88년 임금인상투쟁의 목표와 방향성

Ⅰ. 들어가는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 자신의 생명및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노동자들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임금에 달려있는것이다. 반면에 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적을수록 자본가의 이윤이 늘어남은 물론이다. 그러다보니 자본가와 노동자는 임금액 결정을 둘러싸고 항상 대립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바로 임금교섭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임금교섭이라는 말을 쓰지않고 임금인상투쟁이란 말을 쓴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없이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등한 임금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인상투쟁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임금을 높임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주지하듯이 기업주와 노동자와 대립의 산물로서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결·투쟁해야함을 가르쳐준다. 셋째, 노동조합의 전설과활동강화를 가능케 한다. 넷째, 초보적이나마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인다.

물론 임금인상투쟁이 언제든지 위와같은 성과를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자본가들 역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며 정치권력과 결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탄압한다.

결국 올바른 임금인상투쟁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적합한 투쟁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를 부정하는 자본가들의 선전을 정확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등 것이다.

Ⅱ 임·투를둘러싼 주·객관적조건

1. 정치적동향

미국과 군부독재는 12·16부정선거이후 야권이 파당적 분열의 높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2백만표 차라는 당혹스런 선거결과에 잘시 멀칭하는 사이, 재벌리 국회의원 선거를 치뤄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야권을 군소정당으로 무력화 시켜 국회마저 장악하려하고 있다.

이후에도 올림픽을 이용, 노태우 재신임 국민투표를실시하고 이를통해 제2의 유신독재 발판을 마련, 노태우장기집권 체계를 갖추는 것이 미국의 88년 한반도 신민지파쇼체제 안정화전략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태우 유화정책의 의도도 여기에 있으며 그러므로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임투를 반압하지는 못할것이다.

총선문제는 제반 정치세력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 상반기 정치동향의 가장 큰 변수이다. 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며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반면에 민정당은 국회내 안정적 기반구축을 획책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진영은 잘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노태우 집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커녕 주인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적지않다. 그것은 88올림픽, 그이후 중공과의 직접교류, 중·소·미·일의 남북한 교차승인등을 통해 도리어 현 군부독재체제가 강화되는 결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민주진영은 부정선거규탄투쟁을 총선으로 연결시키고 노동자 평민의 생존권투쟁 또한 총선에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획득해 내고자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임투에 있어 현재의 정치동향은 유리한 편이나 유화정책의 한계상, 임투가 7·8월처럼 전면적으로 발전한다면 대대적으로 반압을 가해 올 것이다. 현재도 자행되고 있듯, 군부독재는 개별자본가의 노조파괴 책동을 공공연히 비호하고, 「동서가구」 파업투쟁에서도 보여지듯 주요 사업장의 파업투쟁에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고 있다.

2. 경제적 동향

호황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욕구를 높여 좀 더 목적의식적인 임금인상투쟁을 가능하게 한다. 80년의 파업투쟁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란 최악의 불황속에서 체불·임금동결등에 맞선 방어적투쟁이었지만, 87년의 파업투쟁은 계속되는 호황속에서 6월 민주화투쟁의 부분적 승리를 계승하여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생존권의 수준을 높이려는 투쟁이였다.

87년의 경우 GNP의 실질성장이 12%, 국제수지 흑자가 98억달러에, 각 기업의 단기순이익증가율이 49.4%에 이르는 호황이 계속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5~8.5%선의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87년 생계비상승률 12.3%, 평산업 노동생산성 12.3%, 4월이기 예상 물가상승률 4.5%등을 감안한다면 29.3%의 임금인상 요인이 있다 (한국노총자료)

더우기 호황으로 주문이 계속되고 있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맞서 장기간 휴업을 하기는 어려울 뿐하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자본가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어 임투에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다.

3. 주체적역량

88년 임투의 주체적 역량이라면 노동대중의 각성정도, 민주노조나 임금인상추진위 등 조직화의 정도, 노동단체나 노동운동가의 대중과의 결합정도, 노동자의 투쟁의지 등 임투를 수행할 주체들의 준비정도를 말한다.

작년 7.8월투쟁은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단결과 투쟁앞에 무력해지는 자본가들의 모습에서 계급투쟁의 현실적 힘을 확인했다.

또한, 7.8월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1천1백여개의 노조 (그 후 1천4백여개로 늘어남)가 새로이 결성되었고 많은 공장에서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이 전개되었다. 민주노조간의 연대도 발전하여 서울지역 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 마산, 창원 민주노조 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인천의 경우도 각 지역별로 적게는 7~8개, 많이는 20~30개 노조가 연대활동을 해왔다. 이렇듯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임투를 계획적으로 준비해갈수있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 한다는 것이 88년 임투가 예년과 다른 질적인 차이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고, 아직 많은 노동운동단체나 노동가들이 노동대중과 결합하고 있는 정도는 낮은 편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투 고무프로그램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점이나 자단체들에 중소사업장의 노조결성의뢰가 계속되는 등 낮은 수준에서나마 노동단체와 대중과의 결합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노동단체가 작년 7·8월 파업투쟁에서 지원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못한점을 반성하며 통일적인 임투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하고있다.

이상에서 볼때 88년 임투의 주체적역량은 예년과 달리 의식적·조직적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다하겠다.

Ⅲ. 임금인상투쟁의 목표

88년 임투는 7.8월이래 가위해서는 개별사업장에서 임투준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민주노조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대규모 중요사업장의 임투준비를 활성화시켜 임투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한다.

이것은 단지 동시기 비슷한 요구의 파업투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투준비의 내용을서로 교류하고 임금교섭의 과정을 서로 각자의 조합원들에게 전파해나가며 전체적으로 임투의 여건을 조성, 7.8월 투쟁의 값진 성과를 계승하여야 한다.

물론, 각 노조의 임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합법적인 임투에서는 파업투쟁 못지 않게 임투준비가 중요하다.

물론 그 준비과정은 조사통계, 홍보선전, 교육, 조합원토론, 집회 등 조직력 강화를 위한 노조활동 전체를 말한다.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임투를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주노조내에서의 임투는 노조에 대해 대중들의 요구에 기초한 임투준비, 임투수행을 행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중들의 임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대중들의 요구를 모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조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 폭로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조활성화 작업을 노조민주화 투쟁으로 전환, 민주노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셋째, 임투를 중심사업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임투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노총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한다. 노총및 산별노련은 7·8월 투쟁당시의 열기및 그 결과 생긴 민주노조 세력을 크게 의식, 노동자들을 노사협조적인 테두리내에 가두어 두려 하고있다.

이는 기만적이긴하나 임투에 적극적인것같은 자세로 나타나고 이미 그들은 4월1일 경의신고, 4월10일 경의집회, 연대투쟁강령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있다. 그러므로 노총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총의 어용성을 적극 폭로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및단결을 민노협의 건설및 강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임투를 전개하다보면 관련사건 경찰서 ▽의 있다 어용바른 어용 추모 복한 가 ★관 관해서 나사 뒤진 은 그는 에 동 작 년 적 근 로 자 들 이 8한 라 이 2부산 일 갱 주 시 위 순 간 을 권 리 주 객 관 적 벌 이 성 이 었 던 는 규 합 조

유화정책, 총선, 호황, 7·8월투쟁 경험은 88년 임투에 유리하게 작용

민주노조간의 연대강화로 「민주노조협의회」 건설해야

서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이 전개되었다. 민주노조간의 연대도 발전하여 서울지역 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 마산, 창원 민주노조 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인천의 경우도 각 지역별로 적게는 7~8개, 많이는 20~30개 노조가 연대활동을 해왔다. 이렇듯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임투를 계획적으로 준비해갈수있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 한다는 것이 88년 임투가 예년과 다른 질적인 차이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고, 아직 많은 노동운동단체나 노동가들이 노동대중과 결합하고 있는 정도는 낮은 편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투 고무프로그램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점이나 자단체들에 중소사업장의 노조결성의뢰가 계속되는 등 낮은 수준에서나마 노동단체와 대중과의 결합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노동단체가 작년 7·8월 파업투쟁에서 지원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못한점을 반성하며 통일적인 임투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하고있다.

이상에서 볼때 88년 임투의 주체적역량은 예년과 달리 의식적·조직적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다하겠다.

Ⅲ. 임금인상투쟁의 목표

88년 임투는 7.8월이래 가위해서는 개별사업장에서 임투준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민주노조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대규모 중요사업장의 임투준비를 활성화시켜 임투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한다.

이것은 단지 동시기 비슷한 요구의 파업투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투준비의 내용을서로 교류하고 임금교섭의 과정을 서로 각자의 조합원들에게 전파해나가며 전체적으로 임투의 여건을 조성, 7.8월 투쟁의 값진 성과를 계승하여야 한다.

물론, 각 노조의 임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합법적인 임투에서는 파업투쟁 못지 않게 임투준비가 중요하다.

물론 그 준비과정은 조사통계, 홍보선전, 교육, 조합원토론, 집회 등 조직력 강화를 위한 노조활동 전체를 말한다.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임투를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주노조내에서의 임투는 노조에 대해 대중들의 요구에 기초한 임투준비, 임투수행을 행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중들의 임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대중들의 요구를 모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조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 폭로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조활성화 작업을 노조민주화 투쟁으로 전환, 민주노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셋째, 임투를 중심사업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임투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노총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한다. 노총및 산별노련은 7·8월 투쟁당시의 열기및 그 결과 생긴 민주노조 세력을 크게 의식, 노동자들을 노사협조적인 테두리내에 가두어 두려 하고있다.

이는 기만적이긴하나 임투에 적극적인것같은 자세로 나타나고 이미 그들은 4월1일 경의신고, 4월10일 경의집회, 연대투쟁강령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있다. 그러므로 노총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총의 어용성을 적극 폭로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및단결을 민노협의 건설및 강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임투를 전개하다보면 자본가의 논리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밖에 없으며 그 기회를 이용, 전 조합원들이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전·선동하여야한다. 더구나 올 임투는 총선과 겹친다는 점에서 이를 정치폭로의 계기로 이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고 승 택
〈노동문제 연구가〉

사설

문무대, 전방교육에 즈음하여

—군사교육의 저의와 군사상황을직시하자

「문무대교육」과 「전방입소교육」이 오는 4월 4일(월)과 11일(월)부터 1·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일주간 실시된다.

본교 학군단발표에 의하면 전방교육은 미이수자를 포함해 총1천 4백 61명중 1천3백40명이 신청, 91·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이는 지난해 신청률 96%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다.

「학생군사교육」은 지난 69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2시간씩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유신체제하 76년부터는 2.3학년 대상의 혈군훈련, 10일간의 1학년 문무대교육이 이후 80년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81년에 이르러 2학년의 전방교육, 1학년의 문무대교육이 각 일주간으로 조정, 필수화되었다. 다만「전방교육」만이 86년「한국군의 미국용병」시비와 서울대생의 분신자살 사건을 도화선으로 선택과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명, 「학생군사교육」은 그 실효성이 없음이 판명되었다. 교련과목이 학생들에게 무슨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학생들간을 분열시키고 있으나 위정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시효과 이상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학생군사교육을 실시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군인우위정신의 주입과 민주열사세력으로서의 학생층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문제의식의 오도 필요성에 근거한다. 이는「위기의식」과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유령을 만들어내 비판정신을매장하고 군사독재의 정당성을 구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 「위협」을 이야기할때 한미 당국이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남한GNP의 6%군사비 지출과 북한의 20%그것이다. 하지만 군사에 사용되는 국민총생산 대비율은 군사력측정에 전혀 무의미하다.

이미 남한의 GNP는 북한의 5배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남한은 75년이후 매년 군사비지출에서 북한을 능가해 왔다. 「미군측국(ACDA)」보고에 의하면 그 수준은 북한에 비해 30%나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60만에 달하는 학도호국단이 준군사력으로 「위기의식」고취에 최면되어 있음을 우린 인식해야한다. 72년 제정되어 16년간 보도영역을 차단해온 「군사기밀보호법」과 84년에 등장한 「국방보도규정」등 제반 악법조항이에 일조하며 우리에게 우민(愚民) 이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한미양국이 그토록 비난하고 있는 북한의군사력 증강과 무기수출문제가 우리에게도 다름없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지에 각종무기와 군수품을 판매해 왔고, 지난 이란—이라크전 기간중에는 북한과 함께 이란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기록이 외신에서 찾아진다.

이제 「위기의식」조장의 일환으로서의 「학생군사교육」은 재고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보위와 안보는 독재수명의 연장과 병행될 수 없을뿐더러 가장 철저한 반독재 민주민권운동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의지만이 실질적인 「국방」의 용어를 사용가능케 할 것이며, 나아가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게 할 것이다.

의견 교환

눈뜬 장님

▲세상에는 눈을 뜨고도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추함으로 인해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신분상승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서도 공돌이, 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다수를 인식하지 못한다. 일확천금을 쫓꾸며 증권시장에 모여들어도 잔업이 넘쳐 매일밤 야근을 해야하는 8만원짜리 노동자의 입금을 알지 못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의 뒷면에 서있는 눈뜬 장님들은 때로는 어리석게도 신체가 건강치 못한 자들을 비웃기까지 한다.

▲전철안에서 자주만날수 있는 사람들중의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돈그릇을 든, 흉하들 말하는 장님거지이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거나 하모니카를 불며 전철의 맨앞칸에서 마지막칸까지 무언(無言)의 생존행군을 한다. 호기심어린 눈들이 그의 외모를살피느라 분주해지고 그의 돈그릇엔 하나둘 잔돈이 던져진다.

어느날, 한 푼 달라는 말 한마디 없던, 그저 잔돈이 돈그릇에 넘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하며 허리를 굽히던 장님거지가 바로 그 전철 한 귀퉁이에 앉아 소리친다.

『세상은 다 거지야! 돈 100원 쥔다고 위세하지 마라.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볼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해. 너희들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진짜 장님들이야!』

▲우리는 지난 내통령선거에서 자신의 집권욕만으로 앞을 장담하던 눈먼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집권연장에만 눈이멀어 일청난 부정선거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미국과 군부독재도 잊지 않았다.

또한 선거에서의 패배를 「단일화실패」때문이라며 돌아서버린 시녀언론도, 그 소리에 오염되어 의식의 눈이 썩어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기억한다. 더 거슬러올라가 보아도 박종철을죽인 고문이, 이한열을 쓰러뜨린 최루탄 SY—44가 왜 나올수밖에 없었는지…알면서도 외면해 버린 너무나 많은 인텔리들의 행진이 보인다.

▲눈은 단순히 외형을 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머문다나 아름다움만을 선별해 보기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인텔리들의 지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쌓여진 것도 물론 아니다. 지식의 주인은 이 땅 수많은 억눌린 사람들인 것이다. 인텔리의 「빛깔음」은 공연한 말이 아닌 역사의 철칙이다.

이제 올바른 인식과 신념을 위해 정신의 눈을 밝게 씻자. 무눈을 부릅뜬 채 섰 수있는 진정한 정상인이 철철 넘치는 세상이 그립다. <명>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너의 눈빛만 으로도 아름답다 - 지지 레이디

감각으로 전해온다.
너의 아름다움—
지지 레이디.
눈빛 만으로도 아름답다.
레이디 전용화장품—
지지 레이디.

지지 레이디 3대 미용효과
● 피부보습유지 : 바이오 성분인 BIO-HE의 탁월한 보습효과로 피부에 촉촉함을 주어 피부자체 보습기능을 도와줍니다.
● 피부탄력유지 : 피부세 탄력성유인 엘라스틴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유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가꿔줍니다.
● 생체비판스우지 : 각종 비타민 유도체의 상호 작용으로 수분·대사·호흡 등의 피부세포의 생체비판스를 지켜줍니다.

숙녀전용화장품
지지레이디
'88서울올림픽 공식화장품

(권장소비자가격)
● 레몬 스킨비비에 …… 110㎖ ·6,000원 ● 레몬 크림상크림 …… 110g ·6,000원 ● 내일팩(리) …… 10㎖ ·3,000원 ● 브러쉬어 …… 3g ×2·5,800원
● 레몬 모이스처라이저 …… 110㎖ ·6,000원 ● 레몬 모이스처상크림 …… 40g ·6,000원 ● 팩리시(로션) …… 1g ×3·5,800원 ● 립시틱 …… 3g ·4,800원
● 레몬 리무버에멀션 …… 110㎖ ·6,000원 ● 립스틱 …… 3g ·4,500원

■ 아모레소비자상담실전화 : ● 서울 (794) 8080 ● 부산 (462) 8080 ● 대구 (72) 8080 ● 대전 (624) 8080 ● 광주 (33) 8080 ● 마산 (44) 8080

민족해방 그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2>

민지하

〈현대사연구가〉

〈지난호에 이어〉

Ⅱ. 현대와 새로운 변혁사상

2. 「새로운사상」의 내용

이전 시대에서 철학의 근본문제는 다음 두가지였다。세계의 구성, 운동에있어서 물질이 우선인가, 정신이 우선인가,또 하나는 인간은 과연 이러한 세계를 인식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여기에 물질이 우선이며(물질의 선차성)인간은 이 물질세계를 인식할수있다(세계의 가인식성)고 명백히 대답함으로써 이전의 모든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격파했음은 이미 앞에서 말한바 있다。

이렇게 물질세계의 합법칙성이과학적으로 해명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합법칙성을 가진 물질세계와 가장 고도한 형태의 물질(정신과 물질의 통일체인 물질) 인 인간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인간이 세계 (자연과 사회) 의 주인인가, 세계가 인간의 주인인가? 인간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물질세계의 합법칙성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가? 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 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인간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개척자, 개조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한다。

이러한 해명은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혹자는 이것을 『도다시 정신을 물질의 우위에 두는 관념론으로의 복귀』라고 비판한다。

인간,특히 인간의「사상의식」에 대한 강조가 이런 오해(?)를 가져올수도 있겠으나, 이점은 뒤에서 다시 언급·해명필것이고, 철저히 유물론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음은 『객관법칙의 실재를 부정하는 것과 그 객관법칙이 무엇을 주체로 하여 실현되는가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만을 한번 더 강조함으로써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마르크스주의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틀른 마르크스주의도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는 철학』을 강조했고 『프로메타리아는 철학의 심장이며 철학은 프로메타리아의 무기』라고 말함으로써 변혁의 무기로써의 철학이 그자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간의 손에 쥐어져야 할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관념론과 대립하여 『굳힌 것을 바로 펴기』위해서 인간의 관념적인소말, 외지자는 별개로 존재하는 물질세계의 합법칙성을 강조할수 밖에 없었고 주체적으로그 물질세계를 개조, 변혁해가는 인간의 위치와 역할은 충분히 해명, 강조되지 못했다。

여기에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경제결정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함정이 존재했고 수많은 소위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자』를 즐겨 물질세계의 합법칙성의 『노예』 (헤겔류의 『이성의 간지를 실현시켜주는 인간』과 다른 것이있다면 절대이념이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법칙으로 바뀐 것 밖에 없지 않은가!) 로 자처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듯 철저한 인간중심의 철학을 마치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이 그 이전 헤겔의 전도된 변증법을 바로 세웠듯이 철학의 근본입무(철학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복무하는 철학)를 명백히 함으로써 전도된 철학을 바로 세웠다고도 평해진다。

또한 새로운 사상은 이렇듯 철저한 인간 중심의 철학 원리를 세운 토대 위에 인간이 세계의 개변자, 개조자로 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사회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의식성과 그상호관계—도 정확하게 해명해 내었다。마르크스주의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노동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틀른 핵심적 내용이긴 하지만, 전면적 포괄적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즉 동물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 활동과 인간의 노동의 차이에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역사발전의 동력이 설명되지만, 인간 노동의 특수성은 전제될 뿐이지 무엇이 노동의 질을 다르게 하는가(인간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 그것이다) 는 설명되지 않았고, 인간이 왜, 무엇을 위해 노동하게 되는가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란 자주성의 실현을 위해서—틀른 『생존』 욕구도 가장 낮은 차원의 자주성이라 할수 있다)도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역사원리는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자。첫째, 사회역사운동의 주체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철학적 원리와의 연관속에서 근로민중을 사회역사운동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근로민중을 주체로 놓는다는 것은 보편적 「인간」을 주체로 설정하는것 또는 마르크스주의 원론 에서처럼 (프로메타리아) 「계급」을 주체로 설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모든 인간을 사회역사운동의 주체로 볼 수 없음은 현실적으로 사회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인간 집단 (지배, 착취세력) 이 존재하기 때문 (틀른 이들의 개조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다。또 「계급」만을 주체로 삼고해서는 안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새로운 시대」의내용(계급적억압·모순만이 아니라 민족적 억압·모순을 철폐하는것이 사회변혁운동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게된 것)과 관련되며 더 크게는 사회역사운동이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자연과의 투쟁, 인간 자신과의 투쟁까지 포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역사운동의 본질은 『인류 역사는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다。사적유물론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와 악마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 놓이는가가 어떤 요소가 성장·발현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소외, 인간성의 왜곡, 타락의 문제는 사회제도가 바뀌면 저절로 해결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며 레닌까지도 이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다。그러나 이후의 실천은 환경이 변화한다고 해서 「즉각적·자동적으로」 인간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지 70년이 지난 소련에 아직도 절도·강도·강간범·알콜중독자 등이 존재하는것, 그것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과거에는 해명되지 못했던 부분 (「인간개조」를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한것 등) 까지를 이론체계속에 포괄해 내었다는데 그 뛰어남이 있는 것이다。

「인간개조」라는 영역이 왜 굳이 고유한 실천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인간개조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약간만 더 설명해보자。마르크스주의 인간관을 「성선설」, 「성악설」식의 구분으로 분류해 보자면 「백지설」에 가깝다고 할수있다。즉 인간은 천사와 요소 와 악마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 놓이는가가 어떤 요소가 성장·발현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소외, 인간성의 왜곡, 타락의 문제는 사회제도가 바뀌면 저절로 해결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며 레닌까지도 이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다。그러나 이후의 실천은 환경이 변화한다고 해서 「즉각적·자동적으로」 인간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지 70년이 지난 소련에 아직도 절도·강도·강간범·알콜중독자 등이 존재하는것, 그것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과거에는 해명되지 못했던 부분 (「인간개조」를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한것 등) 까지를 이론체계속에 포괄해 내었다는데 그 뛰어남이 있는 것이다。

「인간개조」라는 영역이 왜 굳이 고유한 실천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인간개조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약간만 더 설명해보자。마르크스주의 인간관을 「성선설」, 「성악설」식의 구분으로 분류해 보자면 「백지설」에 가깝다고 할수있다。즉 인간은 천사와 요소 악마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 놓이는가가 어떤 요소가 성장·발현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현대와 변혁이념(하)

인간자주성 실현의 실천사상

사회역사운동은 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에 기초하며

따라서 올바른 실천지도원리는 대중에의거·획정돼야

새로운 사상은 철저한 인간중심의 실천철학

즉 자주성을 억압하는 것으로서 자연으로 부터의 구속, 낡은 사회제도의 예속과 억압, 인간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실천은 자연개조, 사회개조,인간개조의 활동으로 나누어진다。따라서 계급사회에서는 계급모순을 해결하고자하는 사회개조 활동이 실천의 중심에 놓여지고, 무계급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건설함과 동시에 자연개조, 특히 인간개조 활동이 중요한 실천영역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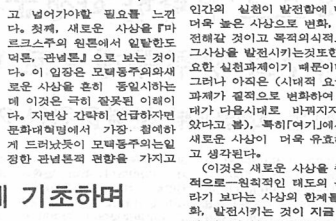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유적 실천으로서 노동과 계급투쟁만을 강조했는데, 노동은 바로 자연개조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고, 계급투쟁은 사회개조 (혁명과 건설) 의 일부이므로 새로운 사상의 설명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교의를 부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억압적 「사회제도의 철폐」, 그것은 분명 인간개조에 여러가지로 유리한 「공간」을 형성해 주기는 하나 인간성이 최대로 실현되는는 이상적인 인간형 (육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에 대한 추구는 전지전능한 신이나 초능력인간 「600만불의 사나이, 슈퍼맨등」에대한 동경에서 왜곡된형태로 나마 필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으로 개조되기 위해서는 자연개조, 사회개조 못지않은 인간의 정력적인 실천이 필요로 되는 것이다。특히 낡은 사상·문화를 중요한 지배체제까지 수단으로 삼고있는 현대 제국주의 시대에 이것은 이후의 과제일 뿐아니라 「현재의」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역사운동은 근로민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사회역사운동의 성격에 관한 세번째 원리, 「사회역사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근로민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사회역사운동의 동력에 관한 네번째 원리는 곧바로 인간 실천에 대한 지도원리로 이어진다。

실천 지도원리를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주인으로서의 자주성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철저히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 자주적 태도와 그것의 실현을 필방침해주는 창조적 방법은 「실정에 맞게」 또 「대중에의거」하는 방법이고 보다 핵심적 외의를 갖는것은 바로 대중노선이다。대중에 의거한다는것은 대중의 힘 (지혜와열정, 창조성) 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생적으로 존재하는는 힘만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대중과 지도 반영하는 의식」을 말한다。또 의식이 존재를 재규정한다고 했을때 그것은 무매개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실천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을 때 인간의 실천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의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진실이다。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이전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새로운 사상의 관계는 뉴우톤의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의 관계와 같다고 할수 있다。뉴우톤의 역학법칙은 가시적 세계에서는 여전히 진리이나 미시적, 거시적 세계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물질세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가 필요로 되었던 것처럼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변혁사상 또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잤고 철저히 실천 주체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명할수 있게 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상에 대한 약의적해로 또는 피상적 평가가 계속 확대 재생산 되고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시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를 느낀다。첫째, 새로운 사상을 『마르크스주의 원론에서 일탈한도 먹른, 관념론』으로 보는 것이다。이 입장은 모택동주의와새로운 사상을 흔히 동일시하는데 이것은 극히 잘못된 이해이다。지면상 간략히 언급하자면 문화대혁명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듯이 모택동주의는일정한 관념론적 편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좌편향 때문에 현재 중국의 수정공산주의 라는 우편향이 필연화되었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새로운 사상은모택동주의의 한계와 오류를 정확히 지적 극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물론 틀린 것은 없지만 (레닌주의의 위대함에 비해서는)『대수로울 것 없는 동어반복』으로 규정하는 입장에게는 이 글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맞는 말이고 분명히 발전의 측면도 있지만 『한 사회의 특수한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일반화해서 적용시키기는 힘든 특수 사상이론』이라는평가도 있다。이러한 입장의 사람들은 『레닌주의의 기초』에서 역설했던 『왜 레닌주의가 러시아에서 탄생할 수 밖에 없었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주의는 러시아 혁명의 사상 이 동시에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혁명사상인가』라는 질을 풀생각해 보길 바란다(그러나 이런 평가는 우리가 새로운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시대적 요구라는 보편성과의 관련하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탄생시킨 특수한 변혁과 건설의 과정과 결부시켜 구체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중요한 점을 일깨워준다는 긍정성은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상이 변혁사상의 최종적(완성)이라고 생각하는것은 틀른 아니다。새로운 사상 또한 시대적 요구와 인간의 실천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높은 사상으로 변화, 발전해갈 것이고 목적의식적으로 그사상을 발전시키는것도한 중요한 실천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대적 요구와 과제가 질적으로 변화하여 현대가 다음시대로 바뀌지지 않았다고 볼), 특히「여기」에서는 새로운 사상이 더욱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새로운 사상을 주체적으로—원칙적인 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상의 한계를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함축을 담고 있음—수용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입장과는 확실히 다른것이다)。그렇게 판단하는 보다 구체적 실천적인 근거—새로운 사상이 구체화된 사회변혁이론의 내용과 그 정당성, 생명력—는 본기획의 다음 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글싣는 차례

1. 현대와 변혁이념〈하〉
2. 세계변혁과 민족해방운동의 지위
3. 민족해방운동발전사
4. 현대제국주의와 한국사회
5. 민족해방운동의 성격과 임무
6. 민족해방운동의 대상과 동력
7.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전술체계
8. 대중의식화론
9. 대중조직화론
10. 민족해방운동의 이행경로

Ⅳ. 결—사상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방도

사상, 이론투쟁이 더 이상 소모적인것이 되지 않고, 올바른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로 되는가? 『××귀신 척결하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사상문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결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레닌주의도 그 한생 초기에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엄마나 이단시 되었던가를 다시 상기해 보고, 새로운 사상은 레닌이 시작한 문제제기를 해명해 나가는 연장선상에서도 파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기바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이진경은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무기의 비판, 새로운 무기』를 강조했다。그렇다。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이진경은 옛날 무기를 다시 닦고 광내는 것이 새로운 무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말로써 전쟁하는 시대가 아닌 현대 전쟁에는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칼을 총으로 아니 핵폭탄으로 바꾸는 무기의 외교써』 가필요하지않겠는가?

또한 새로운 사상을「암송」하는 것을 체득한 것으로 착각하고, 또 암송을 남에게까지 강요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새로운 사상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사람들도 많다。사상을 위한 사상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사상임을 명심하고, 암송하고 인용함으로써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려는 잘못된 태도를 척결해야 한다。(최결되어야 할 ××귀신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새로운 사상이 소수선각자만의 사상이 아니라 대중의 사상, 대중적 실천의 지도사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역시 가장 필요로 되는 것은 실천으로 사상을 구체화시키는것일 것이다。

「공동연구」원고를 모읍니다

본보에서는 최근 학계및 교내외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제분야(사회과학·철학·역사학등)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정리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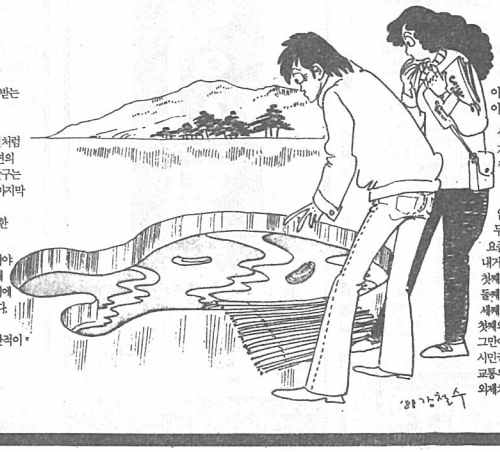
▲대상 : 본교재학생 (대학원생포함)
▲자격 : 반드시 2인이상 1개연구팀
▲주제 : 자유선택
▲문의연락처 : 본보 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309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전화 : 965—7048 (직통)

외대학보

아스아스패션

뉴망이 제안하는 뉴맨의 대학생활

"사랑의 전파자들이여!"



작가 김홍신

하루를 길게 사는 방법은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것이요, 일년을 길게 사는 방법은 부지런히 땅을 일구는 것이지만 평생을 길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게 최선책이리라。

장미꽃나무에 가시가 있다하여 화를 내서는 아니된다。오히려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매달려 있음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만약 장미나무가 화들짝 놀란 듯싶게 화사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 장미나무는 탱자나무마냥 과수원의 울타리 이와에는 쓰임새가 없음직도 모른다。

호기심 많은 개구쟁이들이 넘나들며 한 소쿠리씩 따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리보호용으로서의 장미나무라면 어찌 탱자나무에 비길 수 있으랴 아름다움에는 흐드러지게 지피는 꽃방울도 있지만 날 선 송곳같은 가시도 있기 마련, 겉모양이 아름다운 것은 마치 꽃잎이 시들면 가시만 볼품없게 남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속모양이 아름다우면 저절로 씨앗을 품게 되며, 씨앗은 땅에 떨어져 다시 사람받는 꽃 한송이가 되는 것이다。

사람없이 씨앗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싱싱한 것이며 사랑은 깃털처럼 보드랍고 따스하며 사랑은 가장 질긴 인연의 고리이며, 사랑은 연료없이도 용광로를 달구는 신비한 열정이며, 사랑은 지구와 인류의 마지막 지탱점이다。

사랑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인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임태되는 순간부터 하느님이 예정해 놓은 것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사랑이기에 젊은이는 몸살을 앓듯 사랑을 앓아야 한다。

우리 시가 가운데 만전춘의 서두를 보면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너무 타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얼음 위에 댓닙자리 깔고 누워
님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이불 더디 새오시라。
이불 더디 새오시라"

살을 에는 얼음판 위에 차가운 속성을 가진 대나무잎새로 만든 자리를 깔았으니 얼마나 냉랭한 곳이랴만, 그 위에서 임과 함께라면 얼어 죽어도 좋으니 이 밤이 더디 새오면 한이 없겠다는 지극한 사랑은 열정이 아니고 무엇이랴。

요즘 젊은 사내아이가 계집아이에게 내가는 결혼조건 세가지가 다음과 같다。첫째가 돈은 많고 명은 짧을 것이며, 둘째가 일은 장하고 밥은 조금 먹고, 세째가 미국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을 것。첫째와 둘째는 우스개 소리로 넘기도 그만이지만 세째조건은 계집아이의 미국 시민권덕에 군대 가지않아 좋고, 그 바람에 교통위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센값에 외제차 굴리며 호의호식할 궁리라는 것이다。

지나친 비유이지만 앞의 만전춘 가사는 주는 사랑이고 뒤의 결혼조건은 훔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

각박하기 짝이 없는 현대를 가장 현명하게 살아나가는 것은 제 개성을 발견하여 좋고 싱싱한 젊음이 넘쳐나지않고 줄어들지않게 조정하며, 사랑을 담뿍 담아둘 수 있게 가슴을 가꾸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김모양을 가꾸는 만큼의 가슴화장을 위하여 책 읽는 슬기와 사랑받는 일과 우정 다지기에 정열을 쏟는 지혜가 절실한 것이리라。

남을 칭송하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이 짧기는 어쩌 남을 헐뜯고 미워하며 살 수 있으랴。
지구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젊음을。

NEW SEOUL

안보논리·용병·분단교육화된 학생군사교육

—학생군사교육의 흐름과 그 기본논리

Ⅰ. 들어가는말

8·15해방이후 정당한 자기 지지기반없이 등장한 독재권력은 밖으로 외세와 영합하고 안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물리력을 배양하며 그 지배력을 강고히 굳혀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1949년 4월22일 학생자치기구라는 명목하에 참설된 학도호국대는 준대식 조직을통해 학원가를 획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학생군사교육의 첫발을 내딛게된다.

한국군의 창설배경이 독재권력의 비호와 미국의 대소전초기지였듯이 학생군사교육 역시 미국의 전초기지의 한도구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보다는분단 고착화를 위해 안보·반공이데올로기의 공세속에서 자기근거를 찾아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보·반공이데올로기의 공세가 강화되고 증폭될때마다 반대급부적으로 학생들의 군사교육철폐, 거부 투쟁은 갈수록 고양되어 표출되었다.

이글에서는 학생군사교육의 창설배경및 사적고찰, 그리고 군사교육이 갖는 그 본질적 의미와 청년학도들의 자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대 말까지③80년이후로 나눠볼수 있으며 여기서 86년을 기점으로 다시 세분화시켜 논의할수 있을것이다.

먼저 8·15해방이후부터 60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자. 8·15해방이후 등장한 이만승독재정권은 밖으로는 외세를 등에 업고안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물리력을 바탕으로 그 지배력을 강화 존속시켜왔다.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군사적 체제편성은 교육에서 예외나 특화될 수 없었다.

1949년 4월22일 학생자치기구라는 명목하에 참설된 학도호국대는 이승만정권의 재집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

허나 학생군사교육의 모체인 학도호국대는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군사교육과 함께 일시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는 대학내 장교 육성의 목적으로 학군단을 재등장시킨다.

특히 71년 문교부는 주 2시간에서 3시간의 교련시간연장과 교관의 현역장교 대체를 골자로하는 「대학교련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의해 졸수업시간 20%가 교련교육에 투여되었으며 교외병집체훈련이 실시되는등 총 72시간의 교련수업을 마치야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학원의 병영화와 6·3한일외교반대투쟁운동의 원천적 봉쇄를 하기위한 조치로서 이문제는각대학의 개강과 더불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4월 2일부터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등에서 「교련강화철폐」 「교련철폐」 등을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고 15일엔 서울시내 2만여명의 학생들이 전면적인 가두투쟁에 돌입, 교련반대투쟁의 함성은 드높아가기만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민청학련사건을 조작해 내면서 결국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는등 유신후기에 접어들때 대대적인 운동권의 탄압이 자행되었다.

70년대까지의 군사교육 거부투쟁의 성과는학생운동의탄압, 정권안보에 이용되는 허구성을 일정부분 폭로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할수 있다.그런반면에「학생안보의식의 결여」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않기위해 병영집체교육에 입하는가하면 병영집체교육을 교내교련교육으로의 대체등을 요구하는등 군사교육의 본질적인식 즉 대소전초기지로서의 한국상황과 독재유지수단의 반공이데올로기의허구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하에서 전개되었다는 한계점을 노정시켰다.

2. 80년대이후 전방교육 철폐투쟁

유신체제하의 암흑같은 70년대를 지나 80년에 이르러 군사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민족적 한국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미국을 배제하고서는 있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된 것이다.

3. 양키용병군사교육 온몸으로거부한다

이같은 80년대들어 고양되기 시작한 군사교육철폐투쟁은 86년 서울대 전방입소거부투쟁때 이재호, 김세진 열사의 분신으로 이어지며 더욱 확산되어 나갔다.

이당시의 상황을 좀더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년대 군사교육의 흐름은 한때 총학생회가 일시적으로 부활하기는하나 5월17일 광주항쟁을 계기로 이데올로기 교육의 장인 학도호국단체제로 또다시 후퇴 하는 쓰라린 경험을 겪게된다.

80년 4월 성대를 시발로하여 서울대, 서강대등의 「병영집체철폐운동」으로 확산 되어갔고 4월10일 성대생 7백여명은 학생들의 입영을 위한 수송차량의 교문통과를 저지하며 병영집체교육을 거부하는등 각대학은 교련교육철폐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성과로는 군사교육의 본질이 미국에의한 조정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미흡하나마 밝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위해 교육거부투쟁은 또다시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족의 자주화의 개념과 운동논의 비약적 발전을 토대로 군사교육의 본질폭로작업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시기다.

계속된 군사교육거부투쟁은 86년 이재호, 김세진열사가「양키용병전방입소철폐」를 외치며 산화해감으로써 군사교육철폐투쟁은 전면화 되었다.

이당시의 상황을 좀더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년대 군사교육의 흐름은 한때 총학생회가 일시적으로 부활하기는하나 5월17일 광주항쟁을 계기로 이데올로기 교육의 장인 학도호국단체제로 또다시 후퇴 하는 쓰라린 경험을 겪게된다.

80년 4월 성대를 시발로하여 서울대, 서강대등의 「병영집체철폐운동」으로 확산 되어갔고 4월10일 성대생 7백여명은 학생들의 입영을 위한 수송차량의 교문통과를 저지하며 병영집체교육을 거부하는등 각대학은 교련교육철폐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성과로는 군사교육의 본질이 미국에의한 조정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미흡하나마 밝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위해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반공국가로 위치짓기에 성공하였다.

이렇듯 미국의 경제적침략과 반도민중의 착취를 위한 반공논리에 의해 한반도는 한맺힌 분단을 당했으며, 민족을 양분한 미국은 분단이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획일된 논리와 있지못할 은인으로 둔갑해왔다.

두번째로 교련 군사교육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교육이라는점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그 설움과 비운을 안고 어떻게 해서든 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있다. 여기서 진정한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인은 교육과 연구과정을 통해 통일의 수행방법과 원칙을 발전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오히려 제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끝없는 외식과 실천적 훈련을 반도록 강요하고 있는것이다.

세번째는 정권의 비민주성을 측소시키고 학생의 민주화 요구를 무마코자하는 의도에서비롯된 제도이다. 이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라는 허울속에서 군사교육은 사실상 정권의 비정통성과 독재에 합거하는 민주적인 학생의 정치의식을 잠식시키려하는 정권위지—군사력을 통한—의 한 방편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안보이데올로기의 주입이 주는 허구성이다.

반공을 앞세운 안보이데올로기는 수많은 반민족적인 사실을 은폐해나가는데 일조하게 된다. 군대가 중립성을 상실하여 특정세력의 이해관계에따라 움직여질 때 이는 독재정권세력의 집권연장 수단인안보이데올로기가되며 그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은 분명해진다.

그리고 안보이데올로기의 공세는 더욱 더 분단의식을 심화시키며 민족화합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올림픽을 코앞에 둔 작금, 마유미사건등을 통한 민족의 이질감을 팽배시키는는 리가 지배적인 한독올림픽에 이은 분단고착화가 더욱 뚜렷히 드러날것임은자명하다.

이렇듯 한국의 군대의 외미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외세제국주의 세력의 하수인, 용병이 되어 오히려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양키용병으로 관철되어왔으며 군사교육 역시 대리전 정세력화와 지배논리로 시종일관하게 되었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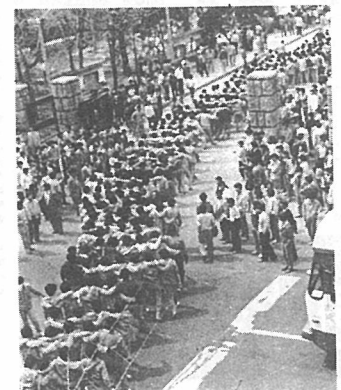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사교육은 현사회의 구조적 모순 척결투쟁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동시에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즉, 군사교육의 본질은 다름아닌 대소전진기지로서의 한국적 상황과 반공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때과악이가능한 것이다.

다시한번 군사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첫번째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한 식민지체제내에서의 교육방식이라는 점이다. 둘째 현정권의 비민주성을 은폐하면서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이며 세째, 위기감조성으로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억제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보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 분단의식을 조장, 통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봉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배논리로 일관된 상황하에서 군사교육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보다 분명해진다. 그것은 군사교육이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켜나가고 민중을 수호하는 교육이 아닌 미국과 독재권력에 의한 반공의식의 주입교육에 다름아닌 것이기때문이다. 이땅의 자주화와 민주화, 그리고 조국통일로 합할수 있는 제반사회 교육여건이 성숙되지 않는한 군사교육 거부투쟁은 끊이지 않을것이다.

〈사회부〉

학생군사교육은 4·19와 80년초 잠시 폐지됐으나 미국과 독재권력의 반공 이데올기로 일관되고 있어



「양키용병교육결사반대」를 외치며 산화해 간 이재호·김세진열사의 분신은 각대학의 전방입소교육거부투쟁을 더욱 확산, 고양시켰다 <사진은 지난86년 본교2학년 학생들의 전방입소거부 투쟁모습>

미국용병 교육으로 전락한 학생군사 교육은 조국통일·자주화 쟁취투쟁으로 발현돼야

전방교육 선택화는 학생내부 분열을위한 기만적 조치

Ⅱ. 학생군사교육의흐름

1. 해방후부터 70년대말까지

우리나라 학생군사교육의 사적구분은 크게 ①해방이후부터 60년대까지, ②61년부터 70년

오학지 출전(暇)

「단결총학」의 신기루

지난 18일(금)부터 시작된 제대 22총학생회장 선거유세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그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되어가고 있다.

학내 곳곳에 붙여진 각 후보들의 선전용 포스터, 공약 유인물, 대자보, 결개 그림 그리고 현수막들은 이번 총학생회선거의 치열함과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반면에, 좋지 못한 사건과 소식이줄을 잇고 있어 이번 선거에 관심을갖고 지켜보는 학생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각 정파간의 주도권 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3명의 후보중 어느 누구도 총학생회장이 필수 없음니다. 사회 민주화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나날이 하락의 길로 가는 외대의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지난25일 용인캠퍼스 유세장에 뿌려진 유인물과 서울 캠퍼스에 붙여진 대자보 내용중 일부분이다.

모단체의 명의로 뿌려진 이 유인물은 「결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3명의 후보는 진정한 외대 발전을 위해 총학생회장이 필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해프닝아닌 해프닝 속에서도 선거현장은 소견을 밝히기보다 상대방 후보들을 비방, 힐책하는 문구의 대자보가 자주 눈에 띠며, 공개토론회외에서는 질문요지에 대해 동문서답하기 일쑤였다. 또한 서로를 흠잡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제소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경견차로 인한 후보들간의 반목과 질시가 만연되어 있음을 느낄수 있다.

정파간의 권력혈사, 지도부층내의 분열등 대중성 결여로 결국 총학으로의 자리매김을 못한채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한 제21대 총학생회의 재판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로 늘어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중차대한 과업을 안고있는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가 표면상으로는 대동단결과 외대중흥을 외치고는 있으나 결국은 정파간의 싸움으로 일관되어, 지켜보는 외대인에게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낙담과 회의를 배태시킬 우려가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와 사명감은 중차대하다. 외대인을 하나의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발돋움하는 제22대 총학생회장선거가 오늘이며, 각 후보가 주장하듯이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대중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비판으로 험난한 이 시대를 이끌 총학생회의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안미숙 기자>

KH 英字日刊紙 The Korea Herald 直營
개강 : 4월1일
⊙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외국어강좌
* 코리아헤럴드社說
* TIME·DIGEST
* 동시통역대학원입시반 아카데미
TOEFL 이재목 L/C Hearing
* Vocabulary 22,000
* 영문해석·기초영어
* 영어실력기초·영작문
* 성문종합영어·기본영어
* AFKN SCREEN합동
* 대학원 입시반
* 생활영어회화
· American Stream Line
· Practical English
· Spectrum English
· English Alive
· Side by Side
* 美國人·日本人会話
* 일본어(박성원 Ⅰ, Ⅱ)
* 일본어스크린회화 독일어
* 中國語, 프랑스어 스페인어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을지로1가 지하철을지로입구역앞 ☎757-0419·0420
※ 관공서 기업체의 외국어 위탁교육은 별도로 협의
실전각광 영어회화 개강 ➡ 4月 7日 (선착순마감)
●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단계-각40일수업(2개월)
● 전원강의 경험이 풍부한 Native Speakers
TOEFL 종합 개강 ➡ 4月 4日
● TOEFL 중 Structure, L/C, Reading, Voca로 학습과목을 세분화 고득점 코-스
Korean Language
● Intensive Course (40days/2months)
● Conversation Course (16days/2months)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퇴계로 본사사옥3층 지하철명동역앞 ☎756-7711
신문구독신청 ☎778-4388, 778-0834

컴퓨터
통학권 발급,휴일도 접수함.
19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개강 : 매월 첫째 월요일
프로그래밍 정규과정(7개월)
프로그래밍 전문과정(1년)
프로그래밍 속성과정(4개월)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EDPS입문, FORTRAN, COBOL, ASSEMBLY, BASIC, DOS 및 CP/M, DATA BASE, SYSTEM분석 및 설계, WORD PROCESSOR, 자료구조, 기초통계, C-LANGUAGE, PASCAL
※ 정보처리기사대비특강 ※
● 개강 : 4월 4일(6주)
● 시간 : 오후6시45분~9시20분까지
본 원 이대입구 전철역앞(중앙빌딩) 313-1711~4
종 로 단성사앞 비원빌딩 745-0461~2
영등포 영등포역 여의도쪽 100m(한전앞) 678-3785,0750
영 등 영 등 사거리 주택은행앞 546-4255~6
부 산 부산역앞(중앙빌딩) 43-0444~6
중앙전산학원

(주)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旧 현대 외국어학원)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 TIME, TOEFL, AFKN 강좌, Word Power, Vocabulary, L.C., 실용회화 英語, 英作文, 英語文方基礎, 英文讀解, 英語解釋, 日本語, 日本語会話, 中國語, Screen 英語
● 個人会話-(Side by Side 英語会話)
● 美人会話-(New English Course 英語会話)
개강 4월 1일 수시등록
파고다극장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4395~7/5081~2

All Faculty Members have post-graduate training abroad
외국어의 향문
학생모집
●동시통역과정
영어, 불어, 일어(英·佛·日語 수강후 일정요건 충족시 본 과정을 수료하는 분의 경우 입학금 면제됩니다.)
●LANGUAGE COURSE
영어, 불어, 일어(Conversation 회화 L/C)
Native Speaker들의 집중교육, 현장실습 과정과 겸임
●TOEFL
L/C, Structure, W/E, Vocabulary, R/C, Essay,
최고 시간당 2,000원 이상을 목표로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음, TOEFL 전문, 유학, 취직시험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ABC News (Nightline) 청취반
●Cable Network News (CNN)
Listening 최고급 ~
본 강의 수강자으로 청취력 완전향상
●Native Speaker 회화반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서반어의 회화를 자유자재로 분석관과 같이 ~
●Donahue, 60minutes, Drama반
최미, 감동, 긴장의 연속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취력 향상
●영문법
문법, 독해, 작문의 체험력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기초부터 하실 수 있음)
●유학준비반
일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유학시험 출제 준비과정) 영국, 미국, 카나다, 일본, 불란서, 독일, 대만, 유학 무료상담
●대학원직학반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각 대학별 출제문제 및 예상문제 출제 분석강의) 각 대학원 입학요강 무료안내
※ 토요모임
토요영화 감상회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서반어)
TOEFL Study Club, 영어회화 클럽, 연극클럽
일어모임, 불어연구회, 독어연구회
(수강생은 입기 모임을 여는 것이나 기금할 수 있읍니다)
549-1536/5117
亞細亞外國語學院

우리들의 대학
민족의 미래인 우리들의 대학 대학신문 기자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대학현실! 상아탑의 가슴 아픈 고백과 참회! 대학인의 하나됨을 위해 거름이 권하는 책
최영재 외 지음
크리온판/224면/2,700원
대학문에 서서 류병주지음 ₩1,500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이정훈외지음 ₩3,500
기획출판 거름
TEL. 736-6882 738-7957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0

軍·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 위촉처
자격 1. 각군 17~26세 고졸이상 (해군중졸이상) 특전 1. 수료후 자격증취득·각군전형을 거쳐임명 (육·학·조·전간는 군번체결 발급)
관인 인성 서예 차트 학원
펜 글씨 차트 동안
수강료 포함 개강일 기준 매월 1회 오전·오후 2회 중앙전산학원 수강생 전원 취업보장 무주택 가족 수강료 무료
732-5346
735-3771

「학술운동론」논의의 배경과 그 내용

이 글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학술운동론」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을 묶어 정리한 것이다. 「학술운동론」에 대한 개념상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과학운동·지식인문화운동) 그것이 내포한 의미는 변혁을 지향하는 현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김동춘, 「학술운동론」, 산업사회연구 2집. 김정식, 「연구자집단의 진로모색을 위한 전제」, 맑원한국사연구실회보 3집. 「산업사회연구회소식」 제4, 5, 9호.

1. 선거국면에서 연구자들은 무엇을 하였나

80년대 접어들어 최대의 정치적 변혁시기였던 지난해 특히 후반의 선거국면에서 학술연구자들은 무엇을 하였나.

사실 6월투쟁과 선거국면에서 연구자들은 「시민」으로 참여하였지 결코 「연구자」로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들이 정치변혁의 국면에서 「시민」으로서만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연구자로서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국면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있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시민으로서 지난해를 넘길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아직은 그들이 개인으로만 존재할 따름이라는것을 대변해준다. 그동안 연구단체들은 나라의 장래와 운동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시점에서 천차만별 말많은 지식인의 정치토론의 장이었을지언정 어떠한집단적 대응을 수행할수있는 공간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1987년의 연구집단은 「작성된 시민집단」의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한채 일상적 연구공간속에서만 보내야했다.

연구자들은 지식인의 일부로서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천하의 대세를 논하는데는 매우 수다스러웠으나 불행히도 연구자로서 자신이 해야할 말은 거의하지 못한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연구자들의 말의 난무, 수다스러움은 필요한말의 부재, 즉 과학적 현실판단과 현실분석의 부재를 의미한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것, 그것은 스스로 과학의 사도, 진리의 사도로서 자기위치를 규정하는 것, 적어도 그것을 자신들의 지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 진리의 순교자가될 용기를 갖지못한 사람은 진리의 사도가 필수 없다.』

연구자들이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것은 선거에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패배이후 허다한 정치변혁의국면에서 도대체 과학은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되돌아 보는 것에 있다.

2. 「학술운동론」논의의 배경—과학과 대중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중들의 야당후보에 대한 광적인 지지 이면에 숨어있고 있는 그들의 변혁에 대한 욕구, 계급적 이해로 표출되지 못하는 한국정치구도의 특성속에서 그러한 내재적·객관적 요구를 읽어내지 못한것은 운동가의 오류이자 운동에 과학적인 토대를 부여해주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아야하는 연구자들의 책임부분다.

과학이 대중과 만나지 못했을때 그것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은 아니다. 책상머리에서 세상의 원리를 논하는 라고 코페르니쿠스나 마르크스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지않았다. 우리가 공부하고 논하는 어느것이나 뒷자국이 묻어있지 않은것은 없다. 사회과학자나 역사학자는 한번의 거대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이론의 정립을 시도하지만 그 한번의 역사적 경험의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회현실은 이러한 경험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가져오는, 반복될 수 없는 귀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하나의 원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삶의 주체인 수많은 민중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 따라서 운동이 과학적 토대에 선다는 것, 과학이 운동의 처절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하루밤에도 현실을 수없이 변화시키는 연구자의 영역 바깥에 있음이 분명하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수많은 대중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르는 현실판단에 있어서나 운동의 약술 정립에 있어서 지극히 신중하지 않을수 없고 수많은 비판에 자신을 개방시켜놓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들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현실로부터 판단의 일차적인 준거를 찾을수 밖에 없고 이것은 과학이 객관적인 현실을 변증법적으로 반영하는 한도내에서 그들 자신을 완성시켜 나갈수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있다.

연구자는 자신을 필요로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언제나 과학의 이름으로 그것의 권위에 입각해서 어떠한 매체를 사용해서라도 선전하고 폭로하고 설명하고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을 자신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하는 그것의 원래의 주인인 민중의 관점에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제한된 여람으로 다소 천박한 지식으로나마 운동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치 않는다면 그것을 매개로하여 정치상황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한 다음에도 그것을 할수 없을 것이다.

3. 학술운동의 성격과 내용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전체사회발전의 과제중 연구자로서 수행하여야할 역할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연구공동체의 차원에서 수행하는것을 학술 (과학) 운동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의 구체적 조건속에서 학술운동이 어떠한 내용을 지닐수 있으며, 또 지녀야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이론이라는것은 기존이론의 내용뿐만아니라 그것의 방법론적 전제,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한편 이론은 현실변혁운동의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이론은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분석과, 그것의 필연적인 경향적 추세에 대한 과학적 체계화와 그 속에서 도출되어지는 변혁주체 형성의 논리이다. 이경우의 이론은 단순한 학술적 차원의 순수이론이라는 협애한 틀을 넘어서서 하나의 세계관의 차원으로 승격되고, 주체의 적극적인 지향을 내포하는 사상으로 발전된다. 이 경우의 과학이론과 사상간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의 최고형태는 사상이며, 그것이 사상의 차원으로 체계화될때 이론은 변혁과정의 물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결국 기존이론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이론적 차원의 비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객관적 조건이 그래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체제의 상부구조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포함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론이 사회현실과의 관련성을 외식하고 「대중을 위한 과학」 혹은 「민족의 이익에 기여하는 과학」을 지향할때 학술운동의 의미는 이론수준의 제고 (提高) 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과학이론은 그것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의 일부로서 그 재생산조건 자체를 문제시하게 되었으며, 기존이론도 그것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릇된 방법론적 전제 및 사실의 곡해에 입각해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를 일부 대변하고 지배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이로기적 종토하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특로, 사회현실의 인과관계에 대한 초보적 설명만으로도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구조의 변혁을 도모할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학자, 연구자의 본령을 벗어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학문의 운동화」의 내용성은 여기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가장 치열한 대응인 변혁운동에 이론적 지침을 마련해 주는 일도 포함한다. 변혁운동의 논리는 운동가들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되어 나가는 것이지만 그들이 필요한 모든 이론적차원의 작업을 수행해 나갈 여유는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정치노선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현실의 변화속에서 올바르게 위치지우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연구자들이 방기해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이다.

분단이후 우리나라에 진정한 사회사상이 형성되지 못했고, 대립되는 사상간의 이론적 실천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학자, 연구자들의 게으름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이데올로기 지형이 사상의 성숙과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눈을 돌린채 많은 이론작업이나 과학의 정립작업이 학술운동의 외피를 쓰고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그래서 과학의 운동성확보 혹은 최소한 양심적인 학자로서 활동하려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4. 학술운동의 몇가지 과제

학술운동이 연구공동체의 과제에서 문제제기되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연구와 공동체는 분완적으로 사회적 힘을 일태할 수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인 연구과제들이 소수의 소개하는 연구자들에 집중되는것이 아니라 학술연구공동체 전체의 문제의식이 되고 과제가 되어야 할은 물론이다. 이러한 학술운동적 관점이 정립되었을 경우 현재 학술운동에는 다음과같이 적지않은 과제들이 주어지고있다. 첫째, 연구의 정당한 철학적 입장과 방법론의 정립이이 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구자대중의 학술운동 능력을 제고하여 사회발전 과정에서의 투쟁하고 정화한 위상을 정립한다. 세째, 책임감있는 학술연구자들 간에 강한권속과 교류가 요구된다. 네째, 비민족 학문체계의 허위성을 과학적으로 극복한다. 여기에는 한국사회과학의 형성사와 기존연구 또는 교과서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포함된다. 다섯째, 외국학문의 도입과정과 여할의 공과 (功過) 를 엄밀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여섯째, 민족적인 학문체계는 어차피 우리나라 연구자들 스스로에 의해 확립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형성과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 술 부〉

학술운동은 개인이 아닌 연구공동체의 차원에서 수행되며, 변혁 이론 지침마련의 과제도 포함돼

◇유홍준역음, 「미학 에세이」, 청년사 펴냄

실천적 민중미학을 위하여

김 경 남
〈대학원 중국어과 석사과정 3학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막상 정의를 내리자면 생각처럼 간단하게 규정되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문제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지도 어언 2백여년이 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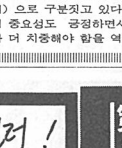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관념적이거나 단순한 감상적 차원의 답을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책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이땅의 추한 사회, 타락한 세계를 아름답게 변혁하기 위한 현장운동의 한 몫을 올바르게 담당하려는 자기성찰의 자발적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그간 에른스트 피셔, 게오르그 루카치, 벤야민, 아도르노, 그람시등 서구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미학저작들이 속속 번역 되어 왔음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거울삼기」의 한줄기이었음은 틀림이다. 그러나 엮은이의 말대로 이들이 우리의 민중미학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는 아쉬움은 현장적 생활을 갖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 느낌이다. 즉 그들 대부분이 아름다움의 민중에 대한 구체적 실천에 있어 갖는 의미를 실체화·현장화시키는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학에세이」는 이런 의미에서, 그보다 한 단계 앞서 민중적 실천미학의 구체화·현장화된 모습에 다가서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비록 서구 이론가들과 같은 추상적인 고도의 논리구사는 없을지라도 말이다.

이 책을 편역하는데 있어 저본으로 했던 「미와 생활 (美與生活)」은 현재 중국대륙에서 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주광도가 쓴 책의 1983년도 홍콩판으로, 현대 중국의 혁명운동과 신중국 건설과정속의 실천미학의 성과를 에세이식으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풀어 쓴 책이다. 전체 글이 2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원서는 크게, 사람은 누구나 미적 향수를 누리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한 부분과, 미의 특징과 본질을 논한 부분, 사회생활미의 문제를 다룬 부분, 그리고 아름다움과 문명문제와 더불어 심미수양의 문제를 다룬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미학은 추한사회구조, 타락한 세계관의 변혁을 위한 자기성찰과 노력의 일환

미학평론가 유홍준편역의 이 책에서는 중국의 특수성으로써 우리에게 부적절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을 가하였다. 또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민중적 삶의 현실속에서 추출한 예를 첨가, 보충해 사회변혁운동의 입장에서 총18장으로 재편집, 번안한점이 특징이라 할수있다.

본서에서는 동서미학사에 있어서 미에대한 탐구를 철학적 관점과 사회생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하고 미의 기본형태를 자연형태의 아름다움 (자연미와 사회생활미) 과 관념형태의 아름다움 (예술미) 으로 구분짓고 있다. 여기서는 예술미의 중요성도 긍정하면서, 사회생활미에 보다 더 치중해야 함을 역설하고있다. 그리하여 미학을 실천미학—우리들의 이상, 감정도덕, 취미에 직접 영향을 끼칠수있는 과학으로, 미학이론을 자연에대해서 아름답게 개조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변혁하며 우리 인류 자신을 아름답게 변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파악하므로써 우리의 추한 현실에대한 변혁의 이론적 무기가 될 수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본서의 이러한 미학관을 제통적으로 본다면 독일의 마르크스와 러시아의 벨린스키·체르니셰프스키·고리키·오스트로프스키, 중국의 노신(魯迅)등이 미학의 맥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다.

시대적 의식에 대하여 역사내적 개인은 어떠한 태도이어야 하는가. 종래의 철학에 대한 개념이 다분히 세계를 구분짓고 해석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면, 오늘날의 철학은 세계에 대한 해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를 합목적적으로 개조하고 변혁시키는 매개적 존재로서 규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실천미학도 역사의 필연적 이행과정내에서 그것이 담당하고 있는 몫을 충분히 수행해나가고자 하며 또 그 몫을 담당해 내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사실이다.

그러나 관념론 미학은 그것이 가지는 제특성 즉, 간혹 보이는 논리적 진보성, 열정적인 탐구심, 역사적 유구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의 실천에 있어서는 원초적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서에서는 기본적인 사고의 출발점부터 새로이 정비하며, 우리의식상에 있어서 관념적이며 사변적인 입장을 탈피한 미학관점을 정립할 것을 일관되게 주구하고 있다.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하에서 선명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다소간의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작은 아쉬움이랄까 문제점 같은 것들도 간단히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끝 말미에 보이는 선종적 풍변시의 어투는 이해의 자그마한 하자 (瑕疵) 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혁명운동과 신중국 건설과정에서의 실천미학에서 온 관점중의 일부가 한국적 특수상황에 인각하여 충분히 여과되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간혹 보인다. 이는 어떻게 보면 본서가 합성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예문의 상대적 빈곤성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본서의 독자대상이 엄연히 한국이라는 특수상황으로 국한된 이상, 전체적으로 공감의 폭, 이해도를 확대심화하기 위해서는우리것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조사에 기초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수용했었어야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중 언급되어 있는 심미수양, 능력, 이상에 대하여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서의 구체적 방안제시가 뚜렷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되는 점이다.

노동대중의 인간적 삶의 구현은 바로 모든 인류전체의 일체화 된 형체의 경지이며 공유하는 삶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사실을 상정해볼 때, 비로소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좀더 올바른 삶과 실천을 지향할 때 모든 양식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창출될 것이다. 본서의 제 장점중 바로 이러한 점이야말로 뭘히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일독할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시사영어학원의 자부심!

TOEFL
VOCABULARY
LISTENING
GRAMMAR
READING
TIME
영어회화
STREAMLINE
일본어·독일어
TOEFL600(종합반)

시내에는 수많은 외국어학원이 있읍니다. 그만큼 외국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가장 중요한 외국어 길잡이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학원이라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책임질 수 있읍니다. 이제 시사영어학원으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통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강: 4월 1일

종로2가 종각뒤편
時事英語學院
상담대표전화 734-2442

젊은 크리스챤의 베스트셀러!

가이드포스트
1988 APR

매주 토요일 3~5시에
파고다외국어학원에서 주말무료
해설 강좌를 실시합니다.

■ 가이드포스트는 삶의 용기와 힘과 적극적인 태도를 발전시킨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체험을 담은 영향대역 원간 잡지입니다.

■ 277-1213 이 전화 한통으로 오늘 바로 원하는 곳으로 뛰어 드립니다.

■ 한권에 800원, 1년에 8,000원 입니다.

月刊 가이드포스트

第3回 大學生論文懸賞公募

신한은행은 재일동포들의 정성어린 출자로 설립된 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2회 공모때 대학생 여러분이 보여준 뜨거운 호응에 보답코자 금년에도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생 논문현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 의욕에 불타는 전국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설립일: 1982. 7. 7
●자본금: 1,000억원
●점포망: 국내 54개소(서울 41, 지방 13개소), 국외 1개소(일본오오사까)
●총수신: 1조9천억원(88. 2월말 현재)

公募要綱

1. 資 格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公募論題
1) 2,000年代의 金融産業
2) 農産物輸入自由化와 農業政策
3) 企業倫理와 勞使 關係

3. 應募磨勘日
●1988. 6. 20(월)
(우송시 당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4. 當選者發表
●1988. 7. 2(토)
●당선자 개별통지 및 한국경제, 매일경제 신문에 공고

5. 賞 金
●최우수작 1편 300만원
●우 수 작 2편 각 100만원
●가 작 3편 각 50만원
●입 선 5편 각 20만원

6. 應募要領
●논문매수: 200자 원고지 70~80매 (7~8매 정도의 요약본 첨부요)
●제출처: 당행본점 기획조사부(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번지) 및 지방소재 점포

7. 其 他
●응모작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치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행 기획조사부로 문의할것 (Tel. 756-0505)

새싹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

기륭쉬제

우리들은 가난하게 살 권리마저 없는가

—그늘지고 소외된계층, 도시 노점상의 실태와 현실

『한많은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한많은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지난 1월12일 냉기가 감도는 1평 남짓한 다락방에서 과도로 자신의 배를 가르고 할복자살을 기도했던 손기섭씨 (54세) 는 혼수상태 속에서도 『한많은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말만을 되뇌이면서 끝이지지 않은 목숨을 한탄했다.

손씨는 언어장해와 혐동이 부자유한 불구의 몸을 이끌고 동대문구 창신동 일대를 전전하면서 넥타이 행상으로 근근히 살아왔다.

그러나, 작년12월16일대통령선거가 끝난후 하루하루의 식량을 걱정해야하는 한계상황마저 고려하지 않는 경찰의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단속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리어커를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는 등의 곤혹을 치르면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무참히 짓밟혔던 것이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불어오나 노점상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리어커를 앞세운 채 그늘진 길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지친몸을 이끌고 하루일과를시작한다. 도시노점상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드나 전국적으로 대략 50만에서 100만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노점상중에는 손노인의 에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채 싸늘히 죽어가고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그래도 두어평짜리 판자집에서나마 이웃과의 정담던 달동네, 매연먼지 마시면서 몇푼버는 재미에온갖 수모를 견디어왔던 노점상들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간직한채 죽기보다 힘든 고통을 참으며 생활하고있다.

서 공장노동자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휴노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휴노동자들은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점상을 생계수단으로 삼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도 노점상들은 저임금을 형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고 우리 사회의 낙후에서 오는 미숙한 공산품의 매개체로서 열악한 조건의 생산품을 소비시켜 기술축적과 재생산을 돕고 저수입 서민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노점상들이 야말로 우리의 모순된 사회구조속에서 가장 희생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존해가는 자구책이며 다수 빈민들의 판매교환이 이루어지는 토다른 시장경제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물적기반을 받쳐주는 중요한 토대인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노점상에 대한 탄압은 도시미관, 도로정비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전체 도시빈민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며 배후에는 매판재벌들의 시장경제를 독점하려는 외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노점상들은 주로 도로변, 육교위, 골목어귀, 시장주변등지에서 일상용품, 악세사리, 음식물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중 80%이상이 농촌출신으로서 농가부채에 허덕이다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이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년을 빼빠지게 일해도 빚만 늘어가서 정든 고향을 떨수밖에 없었읍니다. 글한자 못배웠고 가진 재산도, 기술도 없는데다가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선 뭘가 해야만 했지요.』

청계천 육교위에서 노점상을 하고있는 위재호씨는 『시작한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부부가운 데 중년의 리어커에 매달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노점품목은 제철성이 있기 때문에 제때에 다 팔지못하면 재고가 쌓이는 만큼 빚이 쌓이는 지라 일수, 월변, 달러변등 각종의 고리대에 휘여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한푼의 금융지원도 받을수가 없는것이 이들의 실정이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것중 가장 큰 것은 자녀교육비인데 아들, 딸들에게 가난마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가르쳐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참고서는 커녕 제때 공납금도 낼수 없는것이 안타까운 그들이다.

『문화적 생활이라든가 저축은 상상도 못할 형편입니다. 우선 먹고살일을 걱정해야 할 판국에 어쩌다 아프기라도 한다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4년전부터 단칸방을 얻어 지내며 노점상을 하고있는 전용준 (32) 씨의 말이다.

단속반들의 호르라기 소리와 함상적으로 참아내야만하는 질병이 제일 무섭다는 노점상들은 음막집에서, 단칸방에서 언제 철거당해야 할지 모르고, 거리에서는 언제라도 끌려나야 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땅에 태어났으면서도 도시노점상들은 국민대우를 받지 못한다. 엄연히 십수년을 존속해온 장사터라 해도 현행법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는다. 꼭두새벽부터 밤늦도록 거리에서 물건 한개를 팔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땅 재벌들이 누리는 온갖 특혜, 특권의 동등한 분배가 아니다. 그것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먹고 살수있는 최소한의 자리만은 빼앗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폭염과 매연을 뒤집어쓰면서 온종일 고된 노동으로 얻은 비록 보잘것 없는 벌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밤과 눈물의 댓가이기에 보람으로 느끼며 열심히 살고 있읍니다. 번번한 기술도 직장도 없다고 해서 앉아죽을 수만은 없기에 마지막으로 거리로 나선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노점은 말그대로 우리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입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노점상에대해 외국관광객들이나, 고관대작, 호사스러운 부자들와한에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삶의터전을 빼앗아가면 우리는 굶어죽으란 말밖에 머릴니까』

최근의 강화된 시청과 경찰의 노점상단속에 맞서 서울시내 노점상인들이 각계에보낸 호소문의 일부이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은 크게「도시재개발사업」이란 명목하에 많은 시민의 불편을 막아야하고 간선도로변의 노점상들이 나라의 체면까지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노점상들을 단속하고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주오간선도로변에 지역을 선정, 구청직원과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서도록 하고, 지선도로변은 동사무소가, 시장지역은 파사측이 자체단속토록 하고있다.

청담리 여전히 한 노점상은 『노점이 인구집중의 원인이 된다거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탄압은 정책자의 무능력을 감추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라고 노점상단속이유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노점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속」은 정치일정에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가득 차다시피 하였던 것이 올해 총선을 앞둔 요즘에는 단속이 뜸하지만 선거이후에는 국제 스포츠 행사, 올림픽을 이유로 어김없이 가혹한 단속이 찾아올 것임은 예고된 사실이다.

최근 국제 행사가 찾아지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도시미관이라는 명목과 시민들의보행불편을덜어준다는 이유로 노점상들을 더욱 극심하게 단속하자 이에 대한 노점상들의 저항은 점차 자체 단합속에서 거세어 지고있다.

83년7월 ASTA총회와 IPU총회를 앞두고 천여명 노점상의 시청앞 시위, 성남 모 탄광폐쇄반대시위, 명동성당노점상 대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점상들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대책없는 단속을 반대해왔다. 86년5월 보복단속으로 밥줄을 잃고, 남편과 자식을 남겨둔채, 청계천 육교위에 올라 분신자살한 김순녀씨의 경우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시린손등을 비비며 하루종일 외쳐보아도 그들에게 남는 것은 4,5천원 뿐이다.

—호루라기 소리에 무너지는 삶들

"이제 우리들도 리어커를 끌고 골목으로 도망 치거나 단속반에게 뇌물을 주는 일은 더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떳떳히 살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사회는 노점상들에게 별반 관심을 두지않고 오직「선진 대한민국,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 척도는 길가에 즐비한 노점상들을 싹 쓸어버리는 단속사냥 (?)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도시노점상들의 형성요인은 각개인의 태만이나 무능으로 생겨난 현상만은 결코 아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60~70년대의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오늘날과같이 발전한 이면에는 정부의 값싼 임금, 농산물가격에도 불구하고 피땀을 흘리며 일해온 서민·노동자·농민들의 희생이 컸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70년대 진행된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은 공장노동자의 저임금구조 창출을 위한 저곡가 정책으로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켰고 이들은 저임금 속에서 일만 되지 않아 잘 팔지도 못하는데 단속이 엄마나 심한지 하루에도 몇번씩 도망치곤 합니다.

단속반에게 잡히면 물건을 빼앗기고 구류를 살거나 벌금을 1만원이상 내야 하죠.단속반에게 걸려도 물건을 빼앗기는 대신 돈을 좀 주면 되지만 많아야 하루 4,5천원 버는 사람들에게는 도망치는 게 수입니다.』라고 말한다.

노점상들은 대체로 오전 8시부터 밤11시까지 물건을 팔고 있는데 남대문, 청계천, 동대문등 공해가 극심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공해로 인한 질병에 걸리기 쉽상이나, 음식일 수 소차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거리로 나와야 한다.

하루 평균 4,5천원, 그야말로 「운수좋은 날」에는 1만원을 버는 이들에게 하루하루는 그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놀림자금이 되는 주택철거작업과 「도시미화」로 분간한 노점상단속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중에서도 노점상단속과 이에 대응한 노점상인들의 집단행동간의 마찰은 제도언론의 엄격한 통제와 일반인들의 무관심속에 대부분 은폐되어있는 실정이다.

『86, 88체육대회나 한강에떠있는 저 호화로운 유람선이 집한칸 없이 뜨네기 생활속에서 사랑대접도 못받고 사는 우리 노점상들에게 무슨 의미가있으며 무슨 도움을 준단 말입니까? 수백억에 달하는 외채와 4조억이 넘는 부실기업과 4조억이 다되는 농어촌부채등심각한 경제현실에서 우리의 그늘진 곳을 가린다고 가려질것도 아니고, 그런 위장된 모습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라며 동대문 노점상 김팔봉씨는 당국의 노점상 단속에 분개한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단속받는 사람들에게는 안됐지만 더 운동기간 중에는 단속을 중지했다가 선거이후 곧바로 단속을 시작했고 총선을 앞둔 요즘도 단속이 뜸하지만 선거이후에는 국제 스포츠 행사, 올림픽을 이유로 어김없이 가혹한 단속이 찾아올 것임은 예고된 사실이다.

이미 천여명의 회원과 준회원을 두고 실천과제로 ①생존권확보②의료보장③주택조합건설④신협건설⑤흑보교육⑥장학사업 ⑦이웃돕기 ⑧법률구조등을 설정하여 자유와 권익이 보장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노점상들이 가장 밀집되어있는 종로구창신동에 연합회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여러 사회단체나 국회를 방문하여 부자비하게 자행하는 단속과 88올림픽전후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노점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용협동조합을 이미 설립하여 고물의 일수돈과 달러돈으로부터 벗어나 내일을 대비하는 장기적 계획도 실행중에 있다. 또한 의료혜택의 활무지였던 노점상인들에게 연합회에서는 인도주의구현의사협의회의 지원하에 싼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점상 협의회에서는 변호사회와 사회단체에 접촉하여 변호사와 저명인사들을 노점상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원들의 봉사문제를 이룰게 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단결해서 단속반에게 대항하면 할수록그들의 공갈, 협박도 심해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행사하여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도 리어커를 끌고 골목으로 도망치거나 단속반에게 뇌물을 주는 일은 더이상 하지않습니다. 우리들도 떳떳이 살권리가 있읍니다.』 흩어져 있는 힘을 모으고 노점상들의 대동단결과 조직화를 이룩하여 성공적인 권익도모를 위해 힘찬 전진을 다짐하며 명동에서 노점상을 하는 김정훈씨의 각오이다.

지난 수십년간 사회의 제반 정책의 기형적 발전구조속에서 노점상들은 모든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가난속에서 근근히 생활하면서 일면 영세한 장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내핍과 근면의 산업여군으로서의 큰 부담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온갖 특권과 특혜는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일부 특권층이 부의 일방적 독점과 향유를 누려 헐벗고 굶주린 도시빈민을 양산하였다. 그것은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재를 낳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대책없는 철거와 단속이 부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인간의 부정이요, 생존의 부정으로 살아남기위해서는 필사적인 생존권투쟁을 전개하지 않을수 없다.

당하고만 살아온사람들, 때리면 맞고 빼앗아가면 빼앗기던 사람들, 아파도 누울 수 없고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흰쌀밥 한그릇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불쌍하니까 봐준다는 시혜가 아닌 국민으로서 이제는 당당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 스스로가 먹고 살기위한 한치의 자리를 지키기

취 재 팀
오 상 윤 기자
김 인 호 기자
이 진 기자
윤덕주 사진기자

대책없이 자행되는 노점단속,개별적 대항보다 노점상들의 조직적인 정치투쟁 전개로 극복해야

높은질 낮은가격, 「소비조합」

학교 직영후 소비조합 건설이 바람직

운영위원회, 전담 행정부서등 제도적 장치필요

지난 방학동안 단과대학 학생회협의회는 소비조합 결성을 위해 학교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식당, 매점, 복사기등을 1차적으로 학교직영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 있다。학교측에서도 총무과에 「후생복지계」를 신설하고 식당, 서점등의 직영 (4월중순 실시예정) 에 대비하여 타대학 조사와 가격조사에 착수했으며, 단과대학생회협의회에서도 「협동조합 건설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활동중에있어 제22대 총학생회의 출범과 동시에 학교직영의 협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용인 양캠퍼스의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식당, 휴게실, 서점, 이발관, 복사실, 자동판매기, 다방등으로 이중 서울캠퍼스의 다방과 휴게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입대를 주고있는 실정이다。특히 이러한 입대의 위임경영을 통해서 연 6천6백여만원의 복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복지사업이 이처럼 복지장학금 명목으로 몇몇의 학생들에게만 그 수혜폭이 국한될 뿐,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시설의 재부자나 양·질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는 식당, 매점, 서점등을 입대주었을 경우 학교측의 협정적 규제도 미약할뿐더러, 가격이나 내용면에서 학생들의 편의보다는 이윤추구에 급급할수밖에 없는 경영방식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다。일례로 현재 학교직영되는 구내다방과 식당은 우유값에서 20원의 차이를 보이고있다。하여 본교의 복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소비조합」의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어왔던것이다。

「학생소비조합」은 몇년전 다방과 기숙사식당등에 실시되었던 적이 있으나 경영미숙과 시행착오로 인한 적자운영이 문제되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강구되어 왔다。

학교직영에 대해 방학동안 실무를 담당해 왔던 이희진군(서양·영어 4)은 『성급하게 소비조합을 결성했을 때, 경영미숙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게되므로 1차적으로는 학교직영의 형태를 취하고, 한 학기 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소비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소비조합이 결성되어 무리없이 진행되면 가장 완벽한 형태인 협동조합의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내 복지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한 운용방법은 직영과 조합으로 볼수있으며, 조합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1차적인 방법으로 직영을 할경우 그 운영권은 학교측이 갖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적인 보충능력의 부족으로 직영을 기피해왔던 본교의 경우를 상기할때 학생자치기구에 의한 직영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타학교의 경우 교수·학생 대표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며, 협정부서로는 기존 업무처 산하의 「복지계」나 「복지과」를 신설하여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직영을 할 경우 인원관리의 문제점, 부식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에 따른 비효율성, 학교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및 경비 부담이라는 단점이나타날것으로 예상돼 이에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인하대의 경우 연간 2백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는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라면 1백원, 짜장면 2백50원」등 대부분의 품목이 시중가에 비해 40~60% 저렴하게 시판되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1차적인 직영의 형태가 큰무리없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비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때, 또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진 이후에 소비조합의 결성은 가능해질 수있다。

소비조합은 절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며 자본주의의 폐해속에서 개인주의를 거부하면서 건강한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공동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적 운영·자치·교육·출자금·임여배당의 원리에 따라 소비조합이 결성되었을때 첫째, 창출되는 이익의 학내복지사업과 장학금으로의 재투자 둘째, 높은 질 낮은 가격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이익이 실현될수 있으리라고 본다。

동문장학금 총 80명에게 수여

작년보다 3배증액된1천7백만원지급

동문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3월24일(목)오후5시30분 연수원 소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현욱총동문회장은 특별장학금을 수혜자인 위남욱 (법·법학3), 윤용배군 (서문·서반아어4) 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장학금은 여러분의 선배들의 성의로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할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동문장학금은 69개 전과에 각1명씩 (정원이 1백명이상인 3개과는 1명씩 추가지급) 과 근로장학생 2명, 동문희보기자 4명, 특별장학생 2명등 총80명에게 1천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올해의 경우 작년 (25명, 5백만원) 에 비해 장학금액이 3배이상 증액되어 작년에 문제되었던 특정단대의 동문장학금 편중도 해결되었다。

동문대 체육대회 영불독서도 개최

동양어문대학학생회는 「동양어문대학 체육대회」를 오는 3월30일 (수) 오후1시부터31일 (목) 까지 용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또한 서양어문대학 영어과·불어과·독일어과·서반아어과 공동주최의 친선체육대회가 지난 25일 (금) 오후2시 용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졸준위 독립기구로 체제개편

89학년도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가 총12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22일 (화) 총학생회실에서 비상운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동양어대 졸업준비위원 김준환군 (대국어4) 을, 총무에 정책과학대 남광일군(정외4)과 서양어문대 박수영군(영어4) 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기존 총학생회의 산하기구였던 졸준위를 독립기구로 분리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준환위원장은 졸준위의 구성에 대해 『작년의 경우 5월에 졸준위가 구성돼 실질적인 작업이 늦어졌다고 말하며 『89년도 졸준위는 작년의 열람사건과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각 단과대 졸업준비위원은 다음과같다。

△서양어대 : 최은혁(불어4) △동양어대 : 김준환(대국어4) △정과대 : 남광일군(정외4)△법과대 : 김성태 (법·법학4) △상경대 : 천진영 (경영4) △사범대 : 이준원 (불어교육4) △야간강좌 : 조종원 (영어4) △서양어문대 : 박수영(영어4) △동양어문대 : 정인재 (스와힐리어4) △문리대 : 전외환 (전산4) △사회대 : 김용(경제4) △인과대 : 강순희 (사학4)

용인 F·B·S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아침	9 : 20	F.B.S News & 아침의 산책				
점심	12 : 00	F.B.S Campaign				
		전통의 향기 / 노래의 날개 / 우리들	의 대 인 과	젊음의 메아리 / 소 식	European Music	
		외대논단 / 보도기획	합 계	캠퍼스 풍속도	문화산책	
오후	4 : 30	F.B.S News				
		F.B.S Campaign				
		Classic의 선율 / 영 상 음 악 실	HUFSAN의 소리 / Drama Around World	Pop fete	써클탐방 / F.B.S종합 News	

응급처치법(法)

○…세상의 이치가 하도 묘하게 돌아가다보니 어느것이 진실이고 어느것이 거짓인지 통 분간할 수가 없어。

정국이 불안하거나 위태하다 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따뜻한 남쪽나라 (?) 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이 「응급처리」를 적절하게 해내 이제는「원래 그러는 것이겠지」하고 놀라지도않는게일반적인추세。

지난 10월 북한을 탈출, 중공땅을 헤매다녔다는 무청년이 자유를 찾으러 왔는지 새마을 운동을 잠재우러 왔는지는 알바아니지만 어제 계속 속고있다는 기분…。

○…총학생회장 선거 운동기간과 겹쳤던 이문벌 모의 월드컵이 다시 한번 스포츠의 위력을 과시해。

몇몇의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저조한 썰렁한 경기가 끝나고 후보들이 각자 자기 진영에 모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를 거부하고 나와 길잃은 양떼같이 되었다고。

분명 복잡한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왕산골에 살고 있는 흡산들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를 포기한다함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어떤 이익을 위해 회피하고 있다는 외문도 자아내。

그런다고 왕산골에서 벗어날수 있는 것도 아닐텐데, 목자 (牧者) 를 마다하고 그렇게 날뛰다간 늑대밥(?)이 되기 딱 십상이라는 것을 길잃은 양들은 하루 빨리 주지하시 않。

○…열마전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선 세홍산을 한꺼번에 격하운동하려던 괴 대자보가 나붙어 많은 흡산들을 외아하게 했는데。

출마를 하려고 했던 흡산이라고 자칭하는 이 대자보는 세 후보에 대해서「평등을 추구하는 자들이기때문에 총학생회장으로는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던것。

대자보 붙이다 잡혀가는 세상인지라 아무도 모르게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출처하나 없는 익명의 대자보였는데, 남의 자격 운운하면서 자신이 붙인 대자보가 「자격미달」인것도 모르는걸 보니, 출마안하길 정말 잘했소。

자 격 미 달

「단결된 자세로 임하던 조합원들의 모습이…」

강 영 은

<직원노동조합장>

『지난 1백3일을 어렵게 보냈는지 모르겠읍니다』노조의 1백3개조합의 타결을 위해서 꼭 1백3일이 걸렸다고 말하는 강영은씨 (학생처 장학과 39세) 는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보람되었던 나날이었다고 지난일을 회상한다。

학원이 교수·학생·교직원이라는 3자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직원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언로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소리를 담는 기구의 설립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 지금의 직원노조』라고。

처음 「직원협의회」로 할 것이냐 「노동조합」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노동조합」을 택하게 되었다고 결성당시의 주역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임금문제뿐만아니라 직원 모두의 권리를 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고 강씨는 말한다。

노동쟁의를 벌이는 동안 『학교측의 강한 보수성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는격이 아니냐는 외문이 솟곤 했지만 단결된 노조원의 힘으로 바위는 깨버릴수 있었지요』라며 함께 굳까지 일치단결된 자세로 임했던 전 노조원의 모습들이 자랑스러웠다고 강조한다。

『타결의 마지막 순간까지 관건이 되었던 문제는 조합의 전임자수에대한 권리조합 부분과 청소원·사환들의 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강씨는 『하지만 타협선상에서 권리보다는 최저생계비를 따내는것이 우리의 더른 입무였었음니다』라며 현 교직원들의 임금문제를 나열한다。

『폭히 자료로 삼아야할 호급표의 입수가 어려워 전교직원이 100%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할수 없었다』고 애기하면서 앞으로는 임금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씨는 피력한다。

노조의 정의과정 배울수 있었던 교훈이라면 『우리의 요구는 항상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그리고 공정할 때만이 정취 필 수 있는 것이고, 또 항상 우리의 조건은 이것에 어긋나는 점이 없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강씨는 『앞으로는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서 직원노조 또무가 선봉장이 필것입니다』라고 말을맺는다。

<환>

2학기, 부직 알선 1천3백 여명

학생처에서는 87년 2학기 등계발학동안 총1천3백65명(여6백92명) 의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르바이트 신청자 1천6백22명중 84%에 해당하는

복지장학생 1백72명 선발

서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복지장학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학기에 선발된 복지장학생을 캠퍼스별로 보면 서울캠퍼스가 총1백30명, 용인캠퍼스가 총42명이다。

각단대별로는 서양어대 33명, 동양어대 22명, 상경대 13명, 정책과학대 11명, 법과대 14명, 사범대 11명, 야간강좌 26명, 서양어문대 17명, 동양어문대 12명, 인문과학대 4명, 사회과학대 4명, 문리대 6명이다。

총1백47명에게 20만원씩 지급된 이번 복지장학금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자동판매기 입찰금 (대한벤딩) 5천만원, 노점수익금1백만원으로 지급되었다。

또 용인캠퍼스는 자동판매기 1천1백만원, 구내식당 4백80만원, 승차장매점 80만원으로 총1천6백만원으로 1·2학기로 나눠 지급되었다。

산악장비전시회

본교 산악반 「HUFSAC」주최 산악장비 전시회가 지난 23일 (수) 부터 25일 (금) 까지 용인캠퍼스어문학관 로비에서 열렸다。

등산에 대한 홍보와 산악장비 소개의 취지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빔텍, 알벡등반 장비와 산악반 기록사진, 도서등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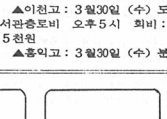
또한, 산악반은 28일 (월) 부터 30일 (수) 까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잔디밭에서 장비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동문대·교양학부 「교양특강」개최

동양어문대학주최 교양특강이 4월1일(금) 오후1시30분 어문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교양특강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비교」란 주제하에 거해 (巨海) 스님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교양학부에서는 김창순 북한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초청, 「한반도문제와 황해삼각지대」라는 제목하에 4월6일(수)오후3시 대학원 105호실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서울캠퍼스〉

▲이천고 : 3월30일 (수) 도서관층도비 오후5시 회비 : 5천원

▲흥익고 : 3월30일 (수) 분수대 오후5시 회비 : 5천원

▲원주고 : 3월31일 (목) 분수대 오후5시 회비 : 3천원

▲성남시 학우회 : 4월2일 (토) 선봉분식 오후5시 회비 : 2천원

▲경북 사대부고 : 4월1일 (금) 분수대 오후 5시 회비 : 양심+성의

▲배명고 : 4월1일 (금) 분수대 오후5시 문무대 및 전방환송식 회비 : 3천원

〈용인캠퍼스〉

▲영등포고 : 3월30일 (수) 학생회관휴게실 오후5시30분

▲동복고 : 4월1일 (금) 학생회관식당 오후5시 회비 : 3천원

〈영화상영안내〉

◇서울 캠퍼스

—시청2시데오룸 (2309호)

▲3월30일 (수) : 오후1시 「사운드 오브 뮤직」 오후5시 「패션」 ▲3월31일 (목) : 오후1시 「사운드 오브 뮤직」 오후5시 「패션」 ▲4월1일 (금) : 오후1시 「무기여잘 있거라」 오후5시 「헤어」 ▲4월2일 (토) : 오후1시 「무기여 잘 있거라」 오후5시 「헤어」

◇용인 캠퍼스

—어문대 영사실 (14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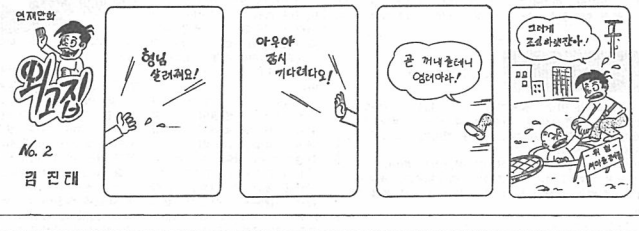
▲3월31일 (목) : 오후1시30분 「제이스」

〈타대학행사〉

▲상명여대 : 제15회 정기공연, F·뒤렌마트작 「미시시피씨의 결혼」 연출 : 김은희 기획 : 김은영 3월31일~4월20일 목·금 : 5시30분 토 : 2시·5시30분 장소 : 소극장 주최 : 상명극예술연구회。

—고 침—

본보 485호 (3월22일자) 신문기사중 취업률 상황표의 사회과학대 취업상황은 용인캠퍼스 총취업률 통계였기에 바로잡습니다。



21년의 결론。

먼부리지 않은듯이 먼부리는 정통 방식,
캠브리지 멤버스가 제안하는 젊은 옷문화 - 엑스게이트.

X·GATE
FOR MEN

CAMBRIDGE MEMBERS

The FORMAL CAMBRIDGE MEMBERS X·GATE FOR MEN

결론 하나. 옷의 문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정당당한 문화질서가 요구되고 있읍니다.
또 그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새롭고 의연한 문화가 요구되고 있읍니다. 저희는 그 대안이 '브리티쉬 클래식 옷문화'라 결론 지었읍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양복의 근원이며 수백년에 걸쳐서 페어플레이의 젠틀맨쉽으로 세계 모든 남자들의 정신적 잣대가 되어온 브리티쉬 클래식 문화 - 그 정정당당한 정신속에 꽃핀 옷차림의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게 재정립하여 새롭게 제안합니다.

결론 둘. 옷의 질(質)
'질기고 튼튼한것이 좋은 품질의 옷이다.' 라고 여겨지던때는 이미 갔읍니다.
이제 그런것쯤은 옷의 기본에 불과할뿐 더 중요한 품질의 요소는 오히려 따로 있읍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의 옷 하나하나에는 그것만의 의미있는 품질이 스며들어 있읍니다. 각각의 품목을 이루는 스타일, 소재, 색상, 무늬등의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지어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을 즐기는 세계의 남자들은 누구나, 그 기능적인 완벽한 품질을 뛰어넘은 정신의 품질 - 각부분마다 역사가 스며들어있는 절대적인 멋과 함께 한다는 만족을 느낍니다. 수백년 동안 고집 되어온 그 의연한 품질의 세계를 새롭게 제안합니다.

결론 셋. 옷의 합리적 조화
있어도 못입는 옷은 혹 없으십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에는 옷차림에 대한 고민 모두를 함께 해결할 완벽한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읍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전통에 의한 결론 - 계절마다의 옷의 구성, 저고리와 바지는 물론 셔츠, 양말등의 모든 연관상품들과 그 조화방법까지 제시된 합리적인 체계를 몇벌 인되는 옷으로도 멋부리지 않은듯이 멋부릴 수 있는 정통 방식으로, 바로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의 옷의 문화로, 새롭게 제안합니다.

엑스게이트는 캠브리지 멤버스가 얻은 21년 결론의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을 빠대로,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을 위해 시대적 감성을 조화있게 살포 더한 남자옷의 젊은 문화입니다.

품 마크는 세계공통의 품질증명표시, 케이에스 마크와 큐 마크는 각각 공업진흥청과 한국의류 시험검사소가 인정하는 우수제품표시입니다.

㈜엑스게이트 매장안내 □롯데소공점백화점 4층·771-25(교) 3441 □유코이어퍼리점매장은 3월말에 영등 중앙로매장은 4월에 문을 연니다. ㈜신동판매점 영등대한빌딩1003호·777-1903~4, 779-0790, 756-2491

㈜캠브리지·삼풍·본사/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461-15·캠브리지빌딩·우편번호 137-070·전화(02)586-0303

정치드라마의 현실과 한계

검열, 통제되는 정치드라마의 방영은 지배권력의 힘의행사가 고도화됨을 의미

1. 들어가는말

총선을 앞두고,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87년 벽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래로 「정치」라는 낱말이 폐부 깊숙이까지 스며들어 있음을 실감할수 있었다.

정치란 금배지를 단 소위 정객들만의 것도, 옷을 갈아입은 장성들만의 것도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5공화국 출범이후 금기시되어오던 정치적 주제의 드라마화가 극히 협소하나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방송 및 상업영화의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치라는 주제는 매우 민감해 당대의 이슈는 물론 지난 과거의 것을 드라마화하는 것조차 취급의 범위와 정도가 현실적으로 제약받기 십상이며, 정치적 내용을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한 사회의 사회경

▲「육망의문」중 한장면. 현정치드라마는 현상적 분석만이아닌 비판적 시각을통한 리얼리즘의 구현이 당면과제이다.

제적 이해라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또다른 상품형식 즉,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전도하는 양상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정치드라마를 영화화하는 방면에 널리 알려진 코스타 가브라스(작품으로 「Z」, 「계엄령」, 「실종, Missing」, 「고백, Confession」등이 있다)가 제작한 「Z」라는 영화는 그리이스 군정기의 반정부지도에 대한 군부의 테러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본래적인 의미인 정치적 내용의 총체적 본질적 이해라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또다른 상품형식 즉,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전도하는 양상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정치드라마를 영화화하는 방면에 널리 알려진 코스타 가브라스(작품으로 「Z」, 「계엄령」, 「실종, Missing」, 「고백, Confession」등이 있다)가 제작한 「Z」라는 영화는 그리이스 군정기의 반정부지도에 대한 군부의 테러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본래적인 의미인 정치적 내용의 총체적 본질적 이해라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또다른 상품형식 즉,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전도하는 양상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로 정치드라마를 영화화하는 방면에 널리 알려진 코스타 가브라스(작품으로 「Z」, 「계엄령」, 「실종, Missing」, 「고백, Confession」등이 있다)가 제작한 「Z」라는 영화는 그리이스 군정기의 반정부지도에 대한 군부의 테러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본래적인 의미인 정치적 내용의 총체적 본질적